

북경중의약대와 협정 한의학 발전 기여

본교는 지난 16일 '북경중의약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중국 북경에서 열린 이번 협정은 △방문 및 연수학자 교환 △학술회의 주최 △의료·사이버강의·산업분야의 교류협력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됐다.

중국의 한의학 단과대학 중에서도 명문으로 알려진 북경중의약대학과의 이번 협정체결은 앞으로 본교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대 교수대의원회 개회 오늘(18일) 5시 상록원

교수회 대의원회가 오늘(18일) 오후 5시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지난달 23일 제 7대 신입 교수총회장으로 심익섭(행정학) 교수가 재선출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7대 교수회의 조직정비를 비롯해 앞으로의 활동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회 방송작품경연대회 안양예술고등학교 대상

본교 교육방송국 주최로 열린 제2회 전국 고교생 방송작품경연대회 입상작이 발표됐다.

△대상=안양예술고등학교, My Red Sea. 오디오 부문에는 △금상=근화여자고등학교, 물속엔 별이 살고 있다 △은상=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소녀의 꿈 △동상=선명여자고등학교, 딸의 목소리. 비디오 부문에서는 △금상=서울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꽃 △은상=서울여자고등학교, My Dream △동상=중동고등학교,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4시 본교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경주한방병원 6일 개원

본교 경주한방병원(원장=이태균·부인교) 개원식이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 송석구 총장, 서정숙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주시 용강동에 있던 경주병원을 8개월간 개·보수공사한 후 확장. 이전한 경주한방병원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됐다.

새로운 전공결정제 세부기준 마련중

단과대별 자율결정 ... 기준에 대한 논란 일듯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공 결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번 학기중에 1·2학년 모두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학부생들은 오는 10월 중순에 전공을 선택한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전공 정원의 최대 150%까지 선발하며, 결과는 전공을 선택한 뒤 약 10일 후에 발표된다. 또한 00학번은 변경된 전공 결정제도에 따라 오는 12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전공 선택 결과가 각 학과에 미치는 영향이 예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공결정제도는 △입학자격을 △2학기 이수 후 △3학기 이후 후로 전공선택시기를 분산하면서 최대 전공 배정 비율을 기준 정원의 150%까지로 제한하고, 1·2차 및 3차 인원배정비율과 전공신청자격 등 세부사항들은 각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인기학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각 단과대의 학문적 특성을 살려 전공과목의 학습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단과대는 대학장 및 각 수업교수들을 중심으로

발견위원회를 구성, 전공신청자격 및 최대배정인원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전공과목이 몰려있는 문과대는 인문학과와 비인문학과와의 지원폭 차이가 심해 최대정원비율을 결정하는데 각 전공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인문학부의 사학과와 철학과의 각각 157%와 40%의 배정비율을 보였으며, 모집단위 광역화로 전공수가 증가하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문과와 같은 인기학과로 몰릴 것이 예상된다.

김항배(철학) 문과대학장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

장하면서 전공의 특성을 살리고, 모든 전공이 안전하게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문과대는 전공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대책으로 인기학과와 비인문배정을 최대 120%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 비인문학과와 인기학과의 50%를 입학자수에 미리 뽑는 방법과 복수전공을 추천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과대의 경우, 전공선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BSM(기초수학·과학·전산학)과목 등 심도

있는 전공공부를 일찍 시작, 전공의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식(화학공학) 공과대학장은 "효율적인 전공공부를 위해 전공선택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부분 단과대들은 새로 개정된 전공결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공선택방식과 시기, 인원배정 등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며, 늦어도 10월 안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영차" ... '2000년 한가위 한마당'이 지난 7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전통놀이를 즐기며 함께 어우러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한가위의 흥겨움이 느껴진다. 김은진 기자 ppuzic@dongguk.edu

야구부 전국대학야구 준우승

결승서 흥대에 9대 5로 저 아쉬움 남겨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제55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야구부는 지난 8일 동대문야구장에서 백상용원단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의 열띤 응원속에서 흥익대와 결승전을 가졌다.

3회까지 팽팽히 맞서던 야구부는 4회초 상대 5번타자에게 좌월1점홈런을 맞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한 준결승전에서 7회를 던진 이대환까지 등판하면서 2번의 투수교체를 했으나, 7회까지 7점을 내주었다.

야구부는 7회와 8회 각각 2, 3점을 뽑아내며 반격했으나, 2점을 추가실점하면서 결국 9대5로 경기를 끝마쳤다.

16강전부터 동의대, 동아대,

원광대를 차례로 물리치며 우승까지 기대를 모았던 야구부는 결승전에서 패함으로써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야구부는 지난 14일 개막한 '2000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 첫 날 대불대의 경기에서 3대1로 5회 강우 폭도승을 거두었다.

박영석 동문 시사광마 출발

히말라야 14좌 완등 2개봉 남아

박영석(동국산악회, 체교91졸) 동문이 이끄는 '2000 동국 시사광마 원정대'가 지난 9일 시사광마(8027m) 등정을 위해 출발했다.

원정대는 9월말에 정상에 도전할 예정이며, 히말라야 8000m 이

상 14좌 완등에 K2(8611m)와 시사광마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K2까지 도전하게 되는 박동문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상반기 심사 5위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가 각 보육센터의 실적 향상 도모 및 우수 센터 관리·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한 중기청상반기 사업심사에서 전국 1백34개 보육센터 가운데 5위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운영능력 △지원서비스의 2개 부문에서 △재원조달 △운영정책 △법률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외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학 부설 보육센터의 평가가 우수했으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서울 창업보육센터 등의 연구소와 서울시 주체의 보육센터도 두각을 나타냈다.

김선근 법인사무처장 임명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오복남)은 지난 4일 법인사무처장에 김선근(인도철학) 교수를 새로 임명했다.

고수동정

▲조영록(사학)=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의 참가.

▲이혜은(지리교육학)=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논문 발표 및 동대학 한국학 연구소 주최 Global Korea Award 참석.

▲진성운(건축공학)=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정부건설부 부속 기관 및 해외건설현장 조사 방문.

▲권영식(산업시스템공학)=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국 스포츠 대학 정보기술협력사업에 참가.

▲임종주(화학공학)=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산업세정 전시회 관람 및 심포지엄 참가.

지면안내

- ▶ 매향리의 한가위 4면
  - 오랫동안 주한미군의 기층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던 매향리주민들을 만나 한가위를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
- ▶ 연재 - 구송회교수의 환경이야기 5면
- ▶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6, 7면
- ▶ 디지털 방송의 미래 11면

보리수

갈등과 화해

전 해 주 (불교대 불교학부)

금년 추석은 유난히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이 넘치는 만남의 날이면서, 뜻 만나 가슴 쓰러린 아픔이 공존하는 날이었다.

남과 북이 50년 세월의 장벽을 넘어 함께 만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념의 갈등은 서서히 해소되어 간다고 해도 풀어야 할 난제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의 통일문제가 아니다.

의약불문제로 인한 파업투쟁으로 의사기진료를 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해야만 하는 암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울먹임이 아직도 안타깝다. 크게 작게 많은 갈등의 요소가 분출되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사회를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사회를 타하게 만들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갈등은 없애려는 마음만 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화해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역대로 우리 선조들은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원효스님이 '화쟁'을 천명했고, 의상스님이 '월광'을 강조했으며, 보조스님이 '일치'를 가르쳤다.

그것은 모두 '한마음의 눈뜸'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는 본래 청정하고 무한한 공덕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해 한 것이다.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다른 이에게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똑같은 부처성품이 있음을 철저히 믿음으로써, 우리는 본래 서로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양보하고 위하는 따뜻함이 흘러나오게 한 것이다.

예로부터 추석은 서로 그 따뜻함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후손들의 만남만이 아니라 온 친지, 온 이웃, 온 나라의 만남이다.

그래서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가 한다. 추석 연휴를 즐기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하나임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발전기금 ARS 7000-119

오늘도 어김없이 전등 하나가 밝혀진 곳이 있습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배움과 가르침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향학열을 불태우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총학생회 선거공약 중간점검

학생총회 성사·교육환경 일부 개선

학생회 강화 큰 과제 ... 책임있는 마무리 필요

'웃으며 맞이하는 자주의 새 아침! 일민이천 동아학우와 함께!' 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난 10개월간 사업을 이끌어온 32대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4)는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태광(국교4)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서 만들어진 협과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성급하게 등록금 협의를 마무리 한 것 역시 한계였다"라고 평가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학교측에 △등록금 13% 인상안 철회 △교육·복지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교발전 동참 등과 같은 내용의 8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각원 개강법회 내일(19일) 오후 4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19일) 오후 4시에 개강법회를 연다. '현대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강법회는 본교 교직원과 학생, 일반 신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복원 컨스님이 설법한다.

대학수기공모 일정변경 오는 30일까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병남·무역4, 이하 졸준위)가 본교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학생활 수기공모 마감 일정을 앞당겼다.

2000년도 하반기 채용 동향과 대책' 특강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중앙강당에서 '2000년도 하반기 채용 동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

MBTI 집단상담 실시 28일 오후 2시

학생상담실(실장=고진호·교육학)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MBTI(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보건의료 영상매체실 신설

보건의료(소장=정지천·한의학)는 영상매체실을 신설하는 등 시설을 개·보수하여 지난 달 14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충, 동원학술상 논문 오는 29일까지 접수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는 제2회 '동원학술상' 논문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고려대장경 사진 출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5일 '개원석교록 2권'과 '일체경음의 9·10권'을 출간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진행 2학기 사업 구체적 논의

동아리연합회(비대위원장=이해현·사회3, 이하 동연)는 지난 6일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주요공익 1. 재단전입금 확보와 등록금동결 2. 교육환경 개선 3. 과·학부 학생회 강화와 자주적 학생회 대중화 4. 남북대학간의 자주교류실현과 통일대추전 진행

주요사업 1. 4자협의회 구성 2. 기숙사 신축 3. 생활협동조합 책임강화 4. 도서관 자치위원회 건설 5. 도서관 건립추진위 구성·진행 6. 대학운영제도 개선 7. 내내복지 환경 개선 8. 생활체육시설 확충 9. 운동부 강화 10. 주차문제 개선 LAN 확대설치 학교지정 확충

회전무대 21C 교육(?)

O...강의계획서와 실제강의진행에 차이가 있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데. 알아보니, 강의 계획서에 있는 많은 시청각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동국PC방

O...정보문화관 컴퓨터실을 찾는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졌다는데. 컴퓨터실 내부에 붙어 있는 '게임금지' 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시간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귀향꽃

O...귀향버스 출발을 앞둔 학생들에게 사고발생 시 학교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동안을 떠들썩하게 했다는데.

개봉박두

O...문과대 새내기들이 '권리찾기 운동'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모집단위광역화가 되면서 생겨난 새내기들의 방황과 어려움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취업희망원 작성 다양한 학생 선별, 취업의뢰 알선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요즘, 취업지원팀이 추진하는 취업희망원 작성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빛기... 지난 6일 여학생들과 북한학과에서 공동주최한 추석맞이 '송편배우기·사랑나누기' 행사가 계간관에서 열렸다.

취업희망원 작성 다양한 학생 선별, 취업의뢰 알선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요즘, 취업지원팀이 추진하는 취업희망원 작성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호 학생상담실(실장=정진환·교육학)을 학생상담실(실장=고진호·교육학)으로 정정합니다.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Table with columns: 해당국, 해당대학, 선발인원, 지원자격. Lists exchange student opportunities for various countries like USA, Japan, China, etc.

Table with columns: 해당국, 해당대학, 홈페이지 주소. Lists exchange student opportunities for various countries like USA, Japan, China, etc.

조기졸업 신청접수

- 1. 신청자격: ①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 (2000년 2학기 포함), ② 취득학점이 급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③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 평점평균이 4.0이상(F성적 포함)이 될 수 있는 자로서, ④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

승용차 10부제 실시

본교는 '97. 12월부터 '동국인 생활경제 실천운동' 및 면학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매주 차 없는 날을 실시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내·외 차량운행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 구성원(교·직원 및 조교)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랍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와 21세기 교육정책

교육의 기본 목표에 충실한 정책 요구

개발 위한 도구로서의 인적자원화 삼가해야

교육부는 '2000년 업무보고'에서 △교육 부총리제 도입계획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 관리체제구축 △교육부 사무의 지방 이양 △국민 기초학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9,000만 학생을 포함한 4700만 전 국민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삼는다는 목표 아래 현재 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10여개 부처에 산재한 관련업무 협의·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고 교육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김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대비, 교육부를 전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부총리격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이 공포되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행정 차처, 과학, 기술, 문화관광, 산업자원, 정보통신,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교육부 장관과 함께 21세기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과 '외국과의 교류의 역순환'의 기로에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인력개발 △사회·문화적 자본의 형성 △국가 총체적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의 3대 기본요소로 파악하였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5년간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 안들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의 질 제고 △인적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및 공정성 제고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의 강화 및 정비 △인적자원개발의 저비용, 고효율화 △북한과의 인적자원 교류·지연체제 모색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질 제고' 영역의 세부과제는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방안으로 대학 졸업생의 학업성과 인종제도 도입 검토 △전

문교육기능의 강화로서 전문 석·박사 학위제도 범위확대 등이다. 졸업인증제 확산에 대한 우려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대학졸업생의 학업 성과 인증제이다. 대학 졸업인증제는 학점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상급관대가 시행하는 '삼품제'의 경우, 인성·정보·국제פור으로 나뉘는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정보검색사 자격증 취득 등 정보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어도 영어는 토플 5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장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학점 이외의 기준이 학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제도화된 사회봉사 활동의 형식성은 이미 그 폐해가 예상되며, 모든 학생이 토플시험을 치러 50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발상은 문화적 식민주의를 부추길 따름이다. 상급관대 등에서 시행하는 졸업인증제의 확대는 학점을 평가절하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전국적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

논단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다. 이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국민을 인적자원으로만 파악하고, 그 대상화되고 객체화된 자원의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더욱 중요한 21세기 교육정책의 목표, 즉 삶의 질 향상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이 회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노선아래 시장주의, 민영화 정책만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식사회에서 교육부만이 국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되어가고 있는 세계적 경향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시장실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 회의의 근시안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목표는 교육의 미래와는 상관이 없이 노동 시장을 유연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

'서약서 소동'과 안전의식

한가위를 맞이해 학생복지위원회와 생활협동조합이 계획한 '한가위 귀향사업' 있었던 서약서 소동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새터 사고로 학내에서 벌어지는 M.T., 답사, 수련회 등의 부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학교측이 요청한 바 있었다. 아직 까지도 새터사고 부상자 보상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나 학생회 모두 함께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불거진 서약서 소동은 결코 좋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이번 일은 앞으로 학생들이 주최한 교외행사의 사고 방지와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보인다. 지난번 새터사고에서 보았듯이 전적으로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일지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도덕적·물질적 책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학생회의 성격이나 역할 상 학생회가 감당할 수 없는 측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약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학교와 협의하여 가능한 많은 협조를 끌어내려는 노력으로 기울어온 학생회나 막상 버스 출발에 임박해서 서약서 운운한 학교 모두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2학기 개강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M.T.와 답사 등 학생회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행사에 안전의식을 갖고 책임있게 준비하는게 얼마나 중요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학교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에 관심을 쏟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터이다. 무엇보다 서로 사고의 책임을 미루거나 모면하려는 발상은 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학생회 공신력 회복하자

학생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분노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과 게시판에는 학생회에 대한 비판 글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강 이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다녀온 확대간부 수련회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학간수련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략 △수련회 일정 △비대위 사업토론 △수련회 예산 사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련회 일정의 경우 클레이사격과 서바이벌게임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학간수련회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점과 비대위 사업토론의 시간보다 많이 할애되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또 수련회 예산의 경우 사용여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비대위 집행부가 학간수련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진실밝히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해 현재까지 학생들의 반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생들은 전체 재학생들에게 학생회가 학간수련회에서 사용한 예산을 공개할 것과 공개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회의 입장 역시 일반 재학생들에게 "예산 나눠먹기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학생회의 한 학기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가 함께 거론되기도 해 학생회 간부들의 자질 논란에 대한 지적도 많다. 물론 학생회 구성원간의 단합도 원만한 사업 진행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그러나 학생회의 권위가 많이 실추된 현 시점에서 학생회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학생회의 공신력 회복을 위한 투명한 예산 공개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해외교류 방안 모색

현실적 상호교류 활성화가 우선

대학 재정·교육환경 확보로 경쟁력 높여가야

'이제 대학이 나서서 해외교류의 길을 찾는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각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고려대는 학생 40여명을 캐나다와 일본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에 참여시켰고, 이화여대는 65명을 미국의 여러 자매학교로 연수를 보내 어학실력을 닦게 했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20여명을 LA소재 자제 어학원인 연세어학당의 영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교의 자매대학교의 연계는 당연히 중요시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각 대학들은 해외대학교와의 연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고려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7개국 23개 대학교와 교환학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세대는 14개국 210여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외연수와 유학은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어 일부 여건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비

감면혜택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고려대가 캐나다에 있는 자매학교로 유학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짓기로 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본교에서도 방학기간 중 6~8주 동안 중국상해사범대학으로 중국어 연수를 보내는 것과 더불어 일본, 중국, 대만의 해외 자매대학교에 교환유학생을 연간 약 30여명 정도 보내고 있다. 보통 다른 대학에서 영어권 국가와 교환학생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본교는 아시아 국가의 대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다. '97년도까지 실시했던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하와이 주립대학 등 미국자매대학교와의 교류는 경비문제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그만둘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연세대의 경우 유학생들이 학비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는데 이는 미시간대학의 학생들이 연세대의 한국어학당으로 유학을 오면서 실질적인 상호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언을 맺어 놓고 현실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는 자매대학들이 '수적'으로 많은 시점에서 이러한 사례는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교환학생제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파견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이기 때문에 해외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본교도 외국유학생을 받아들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각 대학들은 현실적인 해외교류를 위해 외국인 기숙사를 마련하거나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양대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수강료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 주간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E-mail dgupress@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기 26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638 팩스 (054)770-2670

전국 의대생 자퇴 결의 불교계, "현 의료 파업사태는 정부의 전적 책임" 불교인권위원회는 "현 의약분업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현재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에게 권력에 의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의사가 책임지고 국민건강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정책은 올바르게 고쳐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불교계 22일 성명서) 김대중 정권은 의보재정 50% 국고지원을 이행하라.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시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보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취임 당시에 약속했던 의보보험재정 50% 지원만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를 더 이상 울리지 않더라도 완전한 의약분업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50%약속은 올바른 의약분업의 전제조건입니다. 올바른 약사법 개정을 통한 완전 의약분업 실시하라. 의사, 약사의 직능범위를 인정하는 완전법안이며, 파편의료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라.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70%로 감축하고, 의과대학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동시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참/의/료/실/현/을 위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약분업 비대위 경주캠 학생처

경주캠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01. 2월 졸업예정자 포함)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단, 외국대생의 경우 01년 6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지원 가능 - 입관원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까지의 남자 (74. 10. 1~91. 9. 30사이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 접수 가. 장소 / 기간 : 학군단 / 2000. 10. 2 ~ 10. 28 나. 구비서류 1차(지원서 제출시) 2차(신체검사시) - 지원서 1부 - 신원진술서 A원서 1부 - 대입수능(학력)성적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 호적등본 각 1부 (주민등록사본 1부 추가) - 대학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 - 칼라사진(4x5cm 탈모양반신) 1매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칼라사진 (4x5cm 탈모양반신) 2매 - 해당 군 참모총장 추천서 1부 \*개인도장, 수험표, 신분증 정정본만 지참 (타 군출신자만 해당) 4. 선발배정 및 일정 가. 등록/배정 구분 계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신원조회 배정 100 20 20 30 30 관장(합/불) 나. 모집일정 구분 모집공고 교부/접수 서류전형, 체력, 인성검사 신체검사, 면접 최종발표 기간 9. 18 ~ 10. 28 10. 30 ~ 11. 4 11. 6 ~ 12. 2 2001. 3. 27 5. 행정사항 가. 공,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과정의 복수지원 금지 나.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타 선발과정 및 기타 이유로 인하여 중도포기 할 수 없음 경주캠 학군단

교원 졸업앨범 사진촬영 일정표

촬영대상	촬영일시	촬영장소
불교문화대학 소속 교수	9.26(화)~9.27(수)	원효관 지하 동국미술관
인문과학대학 소속 교수	09:00~17:00	(교직원실당 일)
자연과학대학 소속 교수	9. 7(목), 09:00~17:00	자연과학관 2층 공용실현실
법정대학 소속 교수		
상경대학 소속 교수	9. 20(수)~9.21(목) 09:00~17:00	진흥관 1층 대학원 학생회실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 일)
관광대학 소속 교수		
한의과대학 소속 기초교수	9. 19(화), 13:00~17:00	한의과대학 교학과
의과대학 소속 기초교수	9. 8(금), 09:00~17:00	의과관 1층 휴게실
경주병원 소속 임상교수	9.14(목)~9.15(금) 09:00~17:00	경주병원 7층 연구동 휴게실
포항병원 소속 임상교수	9. 18(월), 09:00~17:00	포항병원 7층 외의실
용강병원 소속 임상교수	9.19(화), 09:00~12:00	용강병원 6층 세미나실
강남병원 소속 임상교수	9.25(월), 09:00~12:00	강남병원 8층 세미나실
분당병원 소속 임상교수	9. 25(월), 13:00~17:00	분당병원 6층 강당

 경주캠 학생처

제회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불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전통사찰음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전통사찰음식 조리실습강좌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강좌기간 2000년 9월 20일 ~ 11월 29일(총 11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2. 모집기간 2000년 9월 5일 ~ 30일 선착순 마감 3. 대 상 동국인(남녀불문) 누구나 4. 수 강 료 7만원(등록비 : 4000 + 재료비 : 6,000 × 11회) 5. 접수장소 여학생실(사법대 옆 계산관 1층) 6. 문 의 02) 2260-3056 여학생실·가정교육과

동약로

우선순위



사물함이 백백이 들어선 경우엔 자연과 학과 북도, 40여명의 학생들이 다음 강의 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 혼잡하다. "복도가 이렇게 혼잡한데 도대체 이 사 물함들은 언제 치우려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 사물함은 아직도 사용 하는 거야." "로도 없고 찌그러져 있는 이 사물함들 을 사용한다 말아야?" 서로 마주보며 얼굴을 붉히는 두 학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는다. 자연대 3층 302호 강의실 앞에 배치된 사물함은 136여개. 대부분의 사물함은 관 리가 허술하고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은 약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사물함이 강의실 북도의 30%를 차 지하고 있어 오가는 학생들은 서로 부딪치 기 일수다. "진홍강 강의동도 마찬가지야. 쓰러져가 는 사물함에 새로 들어온 각종 기자재들이 건물 안에 들어져 있고 심한 악취까지 난 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 사람도 자신의 불평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학내 구성원들이 비효율적인 공 간활용으로 느끼는 불편함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비효율적인 공간활용은 구성원간의 갈등 까지 빚어내기도 했다. 한의대와 학교의 공간조정 문제는 본교 한방병원이 이전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해결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여름 본관공사가 진행됐던 소문동장은 신축건물과 우선 순위를 다루 면서 빈 공간으로 방치된 상태이다. 학내 공간활용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간 증설이 아닌 기자재의 체계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공간을 과감히 없애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간문제를 두고 학내 구성원 들의 이해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매향리의 한가위

50년만에 되찾은 '명절'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산과 멀리 보 이는 바다. 고막이 찢겨 나갈 것만 같은 폭 격기 굉을 대신 어느 광범한 농촌처럼 새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 들이 노는 소리가 마을에 가득했다. 한가위 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매향리는 평화로와 보였다. 바다로 이어지는 좁은 사물길 입구에는 매향리 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그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넓게 펼쳐진 매향리 기층 사격장은 철조망에 둘러 싸여 있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에 위치한 매향리는 굴, 바지 락, 조개 등 어패류를 캐고 근해에서 고기를 낚으며 사는 해안마을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미 공군 전용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수 백년간 옥지와 바 다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보상으로 제 대로 받지 못하고 생업의 타전에서 쫓겨나 야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총 5백만 평의 땅을 미군에게 무상으 로 제공했다.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군들이 살이건 추석이건 우리 명절 신경 쓸게 됩니 까? 그냥 낚이건 밭이건 쏘아 대는 거지 뭐... 명절이라고 오랜만에 모인 일가 친척 들은 채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치듯 가곤 했습니다."

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처럼 알려졌습니다. 명절날 아침이 폭격소 리로 생지옥이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적당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보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심산인 것 같지만 이번에는 안 속습니다."

"적당히 보상으로 넘어가려는 게지"

지난 8월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종합대책'은 기층사격장의 사격훈련단 중지 할 뿐 마을 앞 바다에 있는 농장에서 진행된 폭격연습은 거의 변함이 없다. 또한 기층사 격장도 '안전시대'로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 언제든지 훈련이 가능하다. 반면 매향리 주민들은 폭격장 전면 폐쇄를 요구하고 있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 문제도 지난 50년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일 뿐 매 향리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사격장 중지시킨 겁니다. 기층사격을 하 지 않으면 사실 사격장은 존재가치가 없거 든요. 하지만 사격장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보상 문제가 끝 나면 곧장 사격을 시작할 겁니다." 매년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고 다시 재개 하는 주한미군과 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믿 을 수 없다며 매향리 주민들은 문제의 근본 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안보' 내팽개친 '국기안보'

"어여. 점심들은 먹었는가?" 전만규 대책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 집집을 돌아다니다가 배 농사를 짓는다는 운만태(49)씨를 만났다. 윤씨는 기자 일행에 게 갖 짜낸 송편과 막걸리 한 사발을 대접 하며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날 같아도 살았어. 저 폭탄 소리 때 문에 살수가 있어야지... 원 참." 옆에 앉아 송편을 빚고 있던 윤씨의 노모 는 폭격소음을 피해 울산에 있는 큰 밭 대 에 있다가 명절을 쇠러 간만에 내려왔다. "청와대 앞마당에서 폭격훈련을 해보라 지. 서울 한 복판, 여의도 공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향리 문제는 매향리 주 민의 삶과 직 문제,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 라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대한 문제, 민족 자주의 문제입니다." 윤씨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며 "매향리

지난 해 미군의 노근 리 양민학살 사건이 터져 나온 후 매향리 오곡 사간, 한강 독목방 방류 사 건 등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 행각이 드러나 면서 '한반도 속의 미국 땅' 매향리는 각종 언 론 매체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미 행정협정(SOFA)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방부는 지난 8월 18일 기층사격 중지외 폭격장 이전을 골자로 한 '매향리 종합대책'을 발 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나,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모면하려는 정부 의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폭격장 폐 쇄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의식화 가 아닌 생활의 고통에 못 이겨 가슴속에 맺혀있는 응어리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때 마침 고향을 찾은 가수 안치환씨도 만날 수 있었다. 안씨는 고향 집 마루 벽에 가네 등등으로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이렇을 때 여기 앉아 있으면 하루에 수십 대 비행기가 날아오는 게 아주 잘 보였 습니다. 함께 들리는 전곡기 굉음, 폭탄 소 리가 일상적인 일이고 내성이 돼서 무감각 하지만 대부분 정서불안, 신경 쇠약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이렇을 때 여기 앉아 있으면 하루에 수십 대 비행기가 날아오는 게 아주 잘 보였 습니다. 함께 들리는 전곡기 굉음, 폭탄 소 리가 일상적인 일이고 내성이 돼서 무감각 하지만 대부분 정서불안, 신경 쇠약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보름달 보며 비는 매향리의 소망

"매향리 주민들은 금방 끊었다 금방 식는 '남비 언론편'에 이제는 상처받거나 허탈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 럼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우리 손으로 폭 격장을 철폐시키려고요 말 겁니다." 이날 저녁 마을 인근 공터에서 매향리 폭 격장 폐쇄를 위한 마을 잔치가 한바탕 벌어 졌다. 전만규 대책위원장은 모두 모인 가운 데 매향리 주민의 힘으로 폭격장을 반드시 철폐할 것을 다짐했다.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매향리 주민들은 새 천년 한가위 보름 달 아래서 평화로운 매향리를 기원했다.

김진아 기자 pazama@dongguk.edu

인터뷰 - 황선(덕성여대4) 제8기 한총련 방북대표

북녘동포 뜨거운 환영 한민족임을 느껴



덕성여대4 황선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궁금증과 편견은 언 제나 크게 마른다. TV와 신문을 통해 접한 것을 북한의 진부라 믿은 채 살아왔다. 반세 기가 넘는 세월동안 평행선을 달려오던 남북 이 처음으로 접점을 찾은지 지난 6월,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꼈다. 그 혼란은 남과 북 이 한민족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 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방북대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련) 남북본부대표로 남·북·해의 3 자연대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북한 문화유적 답사를 위해 지난 98년 방북한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돌아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 구속되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올해 8·15특사로 출소한 황선 (덕성여대4)씨를 만나보았다.

- 북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을 텐데. = 북한에 다녀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았 다. 돌아온 이후 욕설을 각오해야 했기에 집안문제가 조금 부담이 되 었지만 통일을 앞당기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쁘고 영광스러웠다.

- 북녘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느낌은. = 5개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게됐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는 팔 리 북녘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맘에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다. 이산가족,

그동안 생각해왔던 회색풍경의 도시와는 달 리 굉장히 밝고 쾌활한 분위기였고 남녀노소 할 것없이 노래와 춤을 즐겨하는 모습이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꿈에도 잊지 못해 평생을 두고 그토록 밟아보기를 갈망했던 북녘 땅을 밟은 내가 먼저 밝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다. 도착해서는 평양시내를 차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그 뜨거 운 환영에 감동했다. 좀더 가까이서 원형에 주려던 시민들 덕에 팔 은 다 까지고 땀고, 타고 나갔던 차는 찌그러졌다.

- 직접 느낀 북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 '자신감'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신이 믿고 있는 곳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남한 사람들이 그 동안 생각해왔던 회색풍경의 도시와는 달리 굉장히 밝고 쾌활한 분위기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래와 춤을 즐겨하는 모습이었다.

- 북한을 다녀온 후 통일에 대한 생각은. = 북한에 가서 만나고 같이 생활해본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남한에서는 미리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북한 은 우리의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같은 역사와 언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남북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는 길 뿐이다. 남한은 공동선언문을 정부, 정당,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지·관철하는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2000.4.1~8.31)

그동안 보내주신 정성이 모여 약 473억원이 모였습니다. 익명의 독자가 10억을 기부 해주신 것을 비롯하여 박재상신도와 일맥문화재단에서 2억을, 석도림동문께서 1억을 불 교조합병원 건립기금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신도들과 동문, 학교교직원들의 정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무주상보시(익명)	10억원
박재상(신도), 일맥문화재단	2억원
석도림(동문)	1억원

불교조합병원건립기금

- △30,000,000원 = 김바타심(신도), 한국R(주)
- △20,100,000원 = 오성일(불교대학원)
- △16,022,405원 = 불교대학원총동창회
- △14,000,000원 = 문종수(스님)
- △13,000,000원 = 이은희(불교대학원)
- △11,000,000원 = 정각연
- △10,000,000원 = 권경수(신도), 김재학(국제정보대학 원), 박용식(스님), 불자교수회
- △6,000,000원 = 류준선(의과대학 교수), 박운근(의과대 학 교수), 손근기(의과대학 교수), 송창진(의과대학 교수)
- △5,000,000원 = 경화상사, 김민부(불교대학원), 김용기 (수학교육과 교수), 박도근(동문), 박현자(불교대학원), 이 정분(불교대학원), 이재은(신도), 조미영(불교대학원)
- △4,000,000원 = 박정규(신도), 이흥숙(정보관리실장)
- △3,327,915원 = 차동안(전교회(ARS))
- △3,272,028원 = 정삼현(동문)
- △3,000,000원 = 김동훈(의과대학 교수), 김옥선(불교대 학원), 김점순(불교대학원), 김지용(의과대학 교수), 서대

- 승화(신도), 안명선(행정대학원), 이병렬(행정대학원), 임 연화(불교대학원), 정재정(행정대학원), 최진식(교직원)
- △2,617,623원 = 토포동창회
- △2,508,555원 = 뉴욕동창회
- △2,004,390원 = 자비사연꽃반
- △2,000,000원 = 강신호(행정대학원), 김보광성(스님), 김의근(동문), 김홍식(신도), 노영현(분당한방병원), 문상 길(동문), 박래호(교직원), 배효식(동문), 손정수(동문), 안종현(동문), 언론정보대학원, 영우(주), 우근식(경영대 학원), 윤성현(동문), 이경희(신도), 이수경(동문), 임익성, 차정숙, 하정운(교직원), 황영수(사무처장)
- △1,800,000원 = 박미곤(학부모)
- △1,532,400원 = 강용태(경영대학원), 김광택(경영대학 원), 김병훈(경영대학원), 김시현(경영대학원), 양용규(경 영대학원), 이대승(경영대학원), 이영식(경영대학원), 이 재범(경영대학원), 조봉진(경영대학원), 지두희(경영대학 원), 한영수(경영대학원)
- △1,500,000원 = 김중성(동문), 정연우(행정대학원)
- △1,200,000원 = 김중호(교직원), 이효용(기계공학과 교 수)
- △1,100,000원 = 김태훈(의과대학 교수)

- △1,090,676원 = 위성탄동창회
- △1,080,000원 = 김성자(의과대학 교수), 하정호(의과대 학 교수)
- △1,020,000원 = 박현주(경주병원)
- △1,000,000원 = 강경자(신도), 강외서(신도), 고재환(신 도), 공해정(교직원), 권영남(신도), 권태원(신도), 김경숙 (신도), 김경자(신도), 김금순(행정대학원), 김길주(신도), 김남길(신도), 김동일(의과대학 교수), 김동현(미술학과 과 교수), 김두명(신도), 김복득(신도), 김복태(신도), 김 복향(신도), 김상섭(교직원), 김석용(신도), 김성우(교직 원), 김성원(신도), 김수현(용주사 주지), 김승식(신도), 김연순(신도), 김영일(신도), 김완호(신도), 김자진(학군단 장), 김재선(교직원), 김정학(행정대학원), 김경희(신도), 김준기(한외학과 교수), 김진자(행정대학원), 김진환(신 도), 김지홍(신도), 김태형(교직원) 김태원(신도), 김종 일(건축공학과 교수), 김호정(교직원), 나서홍(신도), 류인 표(동문), 문순식(신도), 문정철(학부모), 민상연(분당한방 병원), 민성진(신도), 민승자(신도), 박광현(신도), 박병환 (신도), 박연희(신도), 박의순(신도), 박경길(신도), 박종 성(행정대학원), 박종영(신도), 박진영(신도), 박백민(행정 대학원), 박완식(동문), 박효영(행정대학원), 배재익(의과 대학 교수), 백효영(행정대학원), 범희스님(스님), 보은사 (사찰), 봉선화(신도), 서성준(신도), 성종수(동문), 신 남철(신도), 신동재(신도), 신민철(동문), 신민철(행정대학 원), 신유철(신도), 신정호(신도), 신해철(교직원), 심봉현, 안태희(신도), 안영문(신도), 양병욱(신도), 양수옥(일남대 학원), 염기택(신도), 영근(교직원), 영동사(지부회), 오수 인(교직원), 오영숙(신도), 오은영(신도), 유재훈(신도), 유진(교직원), 윤성노(신도), 윤여봉, 윤학연(신도), 이길 지(행정대학원), 이두원(신도), 이명환(신도), 이배연(불교 대 학원), 이상금(신도), 이상철(신도), 이석철(신도), 이 승택(강남한방병원), 이영수(신도), 이영자(신도), 이예순 (신도), 이완정(신도), 이응석(교직원), 이은주(신도), 이 재곤(신도), 이재봉(교직원), 이재선(건축공학과 교수), 이 재철(신도), 이지호(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창수(신도), 이창학(교직원), 이춘지(신도), 이혁중(행정대학원), 이호 규(신분방송학과 교수), 이희복(신도), 임우스님(동문), 일 련스님(신도), 임경자(행정대학원), 임민중(정보통신공학 과 교수), 임상노(신도), 임준태(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병 진(신도), 정준혁(한외학과 교수), 정병진(교직원), 정재근 (신도), 정대원(행정대학원), 정영순(신도), 정영두(신도), 정윤상(신도), 정인광(신도), 정진환(교육학과 교수), 조경 희(신도), 조국(법학과 교수), 조권형(신도), 조규정(동 문), 조동규(신도), 조종표(신도), 조상인(신도), 조성운 (스님), 조형재(컴퓨터공학과 교수), 진승국(학부모), 차영

- 자(신도), 최경진(교직원), 최도명(신도), 최란이(신도), 최수길(신도), 최영희(동문), 최희의(신도), 최경자(신도), 최정희(분당한방병원), 최재우(신도), 최규기(불교대학 원), 하대경(신도), 학지수(학부생), 함민식(신도), 함성진 (신도), 한영숙(신도), 한인순(신도), 한정아(신도), 하세 만(신도), 홍정숙(행정대학원), 황규순(신도)
- △900,000원 = 정재욱(경주병원)
- △800,000원 = 최광재(교직원)
- △720,000원 = 문윤재(신도)
- △700,000원 = 서현종(스님), 이도우(경주병원), 이순애 (경주병원), 최재훈(교직원)
- △654,406원 = 달라스동창회
- △600,000원 = 노장오(교직원), 송영천(신도), 임병희(신 도), 한송식(경주병원)
- △510,800원 = 유의호(문화예술대학원)
- △500,000원 = 구태희(경주병원), 김팔자(신도), 김발희 (경주병원), 김보현(동문), 김삼수(신도), 김신경(교직원), 김은희(강남한방병원), 김태숙(경주병원), 김필자(경주병 원), 김형경(경주병원), 박근화(신도), 박성식(한외학과 교 수), 박숙희(경주병원), 박연희(신도), 박영선(경주병원), 박재남(신도), 박원미(경주병원), 박연태(교직원), 보현가족 (신도), 손덕수(교직원), 신우희(신도), 영현사, 오순자(경 주병원), 우선애(경주병원), 유우근(분당한방병원), 이규복 (강남한방병원), 이근재(교직원), 이병성(스님), 이정우(분 당한방병원), 이정임(경주병원), 이형경(경주병원), 정영희 (경주병원), 정재우(불교대학원), 차동성(경주병원), 최용환 (분당한방병원), 최경미(경주병원), 신우희(신자), 임명
- △450,000원 = 정우래(신도)
- △436,270원 = 밴쿠버동창회
- △400,000원 = 김정임(경주병원), 변기진(경주병원), 박 종용(신도)
- △360,000원 = 강정아(신도), 김광윤성(신도), 김정희(신 도), 서석분(신도), 손혜남(신도), 손혜석(신도), 이태홍, 차주식(신도), 최윤림(신도), 홍승달(신도), 황윤하(신도)
- △327,203원 = 샌프란시스코동창회
- △300,000원 = 강은주(분당한방병원), 곽현영(분당한방 병원), 구복심(강남한방병원), 권윤경(강남한방병원), 김 명숙(강남한방병원), 김명숙(신도), 김명희(강남한방병 원), 김성원(강남한방병원), 김은경(신도), 김경매(경주병 원), 김지선(강남한방병원), 김형석(강남한방병원), 김광 종(신도), 노재연(신도), 류기진(신도), 박태희(신도), 박 동연(신도), 박병희(강남한방병원), 박성주(경주병원), 박 수영(분당한방병원), 박영순(분당한방병원), 박정숙(분당 한방병원), 박정숙(분당한방병원), 박종열(신도), 박종열 (신도), 배병훈(분당한방병원), 소연정(강남한방병원), 손

- 정주(강남한방병원), 송경희(강남한방병원), 송서열(신 도), 송순이(신도), 영광숙(분당한방병원), 오세원(신도), 윤인숙(강남한방병원), 이영경(분당한방병원), 이정태(강 남한방병원), 이원재(신도), 이원희(분당한방병원), 이재 성(동문), 이해경(강남한방병원), 임정란(강남한방병원), 정은희(강남한방병원), 정남보(강남한방병원), 정병지(강 남한방병원), 정화원(강남한방병원), 지선영(강남한방병 원), 진연숙(신도), 차인규(강남한방병원), 최경진(분당한 방병원), 최규현(동문), 최형윤(강남한방병원), 최연아(강 남한방병원), 한상희(강남한방병원), 허준(강남한방병원), 홍정자(신도), 황정숙(신도)
- △280,000원 = 흥계시선원(신도)
- △270,000원 = 김경미(교직원)
- △250,000원 = 김해욱(신도)
- △240,000원 = 박용남(신도), 안미영(경주병원), 이종갑 (신도), 장경조(동문), 최은자(동문)
- △220,000원 = 윤우식(신도)
- △200,000원 = 강기영(신도), 강해욱(포항병원), 고재환 (신도), 구순정(경주병원), 권병조(경주병원), 권미희(분당 한방병원), 권양희(경주병원), 김기희(경주병원), 김민주(분 당한방병원), 김순수(신도), 김성수(신도), 김순자(신도), 김영숙(포항병원), 김영철(분당한방병원), 김영영(신도), 김은순(분당한방병원), 김인자(경주병원), 김정원(경주병 원), 김주영(분당한방병원), 김광현(신도), 김태익(분당한 방병원), 김혜숙(신도), 김홍식(신도), 김희정(포항병원), 류순익(분당한방병원), 박경태(분당한방병원), 박순현(분당 한방병원), 박경자, 박영희(신도), 박종남(포항병원), 박연 숙(경주병원), 손민정(포항병원), 손후남(포항병원), 심효섭 (신도), 양철공(분당한방병원), 오은하(분당한방병원), 우영 미(분당한방병원), 유영란(분당한방병원), 윤진희(분당한방 병원), 윤희연(신도), 이경자(경주병원), 이상미(분당한방병 원), 이상희(신도), 이선정(분당한방병원), 이영숙(분당한방 병원), 이지경(포항병원), 이재홍(신도), 이영미(포항병원), 이현자(분당한방병원), 이해경(분당한방병원), 임영숙(경주 병원), 임영태(분당한방병원), 임희미(분당한방병원), 장순 희(분당한방병원), 장윤선(분당한방병원), 장인희(경주병 원), 이재경(포항병원), 장대원(분당한방병원), 정대균(경주 병원), 정승민(신도), 정기정(포항병원), 정태용(신도), 조용 섭(경주병원), 조현석(분당한방병원), 주덕순(경주병원), 최 옥남(포항병원), 최희진(신도), 최현미(신도), 한순숙(포항 병원), 한지수(분당한방병원), 하미선(경주병원), 허병철(분 당한방병원), 허승은(분당한방병원), 홍분자(신도), 홍인일 (신도), 황이연(분당한방병원), 황정수(신도), 황지연(포항 병원), 황재진(분당한방병원), 박종열(신도), 박종열
- △190,000원 = 강병기(신도), 강경란(신도), 이순례(신



朝鮮日報 中央日報 韓國日報 香港經濟日報 香港新報 香港新報

언론비평

남꽃계 사건과 언론

꽃계에 남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8월 22일이었다. 모든 신문들은 보도 기사와 사실 등을 통하여 일제히 중국산 꽃계가 대량 유통되고 있고, 이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실과 칼럼을 통하여 "꽃계에 남을 집어 넣다니" (문화, 8월 22일), "남 꽃계는 살인죄" (조선, 8월 23일), "벽거리에 남을 넣다니" (대한, 8월 23일) 등으로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다.

결과는 국내산 수산물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모든 수산물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애초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관한 보도보다는 모든 신문들이 앞다투어 북어, 아귀, 조기 등 모든 수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갔다. 차분하게 원인 규명을 하기보다는 경쟁적으로 한 건 터트리기의 보도를 해 나간 것이다.

8월 24일에는 "물병이 든 흉어-모래 넣은 조기" (세계, 8월 14일), "물 흉어" (한국, 8월 24일), "물병이 흉어" (대한, 8월 24일), "물병이 흉어" (조선, 8월 24일) 등으로 조기, 흉어, 북어, 아귀 등 거의 모든 수입 수산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러면서 "검사가 부실하여 식탁 안전

결과를 국내산 수산물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모든 수산물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애초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관한 보도보다는 모든 신문들이 앞다투어 북어, 아귀, 조기 등 모든 수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갔다. 차분하게 원인 규명을 하기보다는 경쟁적으로 한 건 터트리기의 보도를 해 나간 것이다.



선정적 보도, 한걸음더 급급 차분한 원인 규명 필요

위협" (한겨레, 8월 25일) 하고 있다. 수입 꽃계 전량을 급속 탐지기 등으로 탐색하고 있다(중앙, 8월 25일), "중국서 왔을까 국내 소행일까" (조선, 8월 26일) 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8월 26일에 "유해식품 처벌 대폭 강화된다" (대한, 8월 26일), "식품위생사법 처벌 강화" (한국, 8월 26일), "송방망이 처벌 유해사법 양산" (국민, 8월 26) 등으로 처벌이 미약해서 유해식품이 대량 유통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송방망이 처벌"로는 유해사범만을 양산한다고 논조를 강화한다.

목소리를 드높였던 신문들이 열흘이 지난 후에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유통 관리가 탄탄해지고 송방망이 단속이 나무방망이로 바뀌어져서 그렇까? 아니다. 한국 언론은 항상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원인과 대책 등을 차분하게 점검하고 진단하기보다는 목소리만을 높이며 선정적으로 한 건 위주의 보도에 몰입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조 파업 때도, 롯데 호텔 파업 보도 때도 한국의 언론은 항상 한 걸음 더 선정적인 보도만을 일삼아왔다. 한국의 신문들은 이제라도 차분하게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점검해야 한다. 지금도 과연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지 신문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탐사 보도해야 할 것이다.

윤동욱 광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준비없는 '대학가기' ... 학교가 흔들린다

특성화 · 자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대학이 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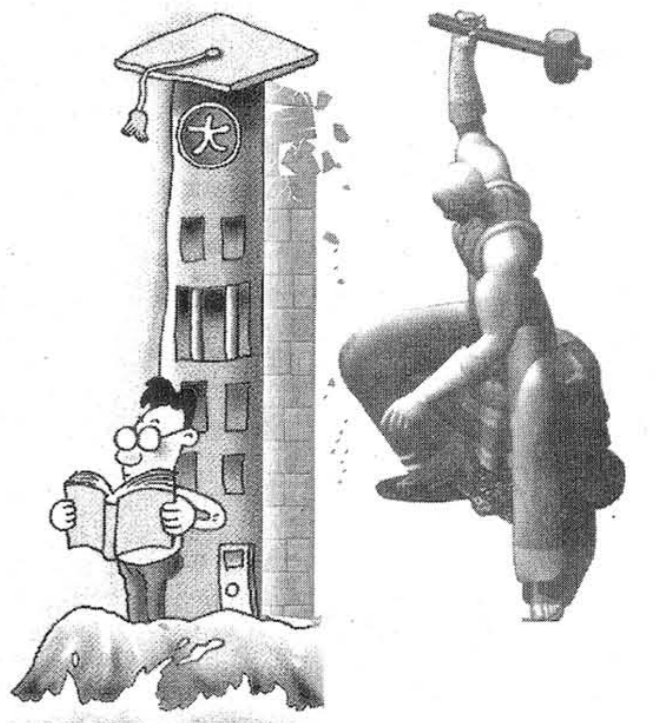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현상이 중·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모양이다. 대학에서도 같은 현상이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대학에서 휴학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어학 연수라든가 군대 문제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더 여유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확고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 진다면 그 원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학생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이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교육법은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에 필요한 학습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대학 교육을 받을 능력과 자신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나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꿈과 목적은 그저 '대학가기' 일 뿐이다. 대학에 가서 어떻게 그들의 꿈과 비전을 펼쳐 나갈 것인가 보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기인 것이다. 대학만 가면 단

숨에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욕구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대학에 온다. 신나는 자유를 만끽하며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렇듯 대학에 대한 준비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고등학생들은 오직 '입시 준비'에만 급급했다.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흥미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수능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결정하고 또 학과를 선택한다. 대학에 대한 준비나 충분한 고려없이 대학생이 되는 것만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대학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기도 하다.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왔을 뿐인 대학이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찍힐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부모나 친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압력과 사회적 편견에 밀려 대학에 온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대학은 심오한 학습을 교수·연구하는 장으로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는가? 또 지도적 인격 도야의 목적을 만족스럽게 실현시키고 있는가? 학과별 모집에서 계열별 모집으로 그리고 학부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욕구는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이러한 반 강제적인 행정 위주의 제도적 변화는 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방안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고등

학교 교실보다도 더 탁월한 대안위 교양 수업, 혼란스러운 수강 신청제도 그리고 별로 달라진 것 없는 열악한 교실 상황, 충분하지 못한 실습실과 시설 등, 다양하지 못한 교과과정의 편성, 획일적인 성적 평가, 그리고 여전히 난무하는 부정 행위들이 이르기까지... 대학의 현실은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학도 학생도 그리고 사회도 변해야 한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특성화하여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21세기 주역이 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깊은 학문 연구의 힘과 과정을 통해야만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각오로 대학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제구실을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고정적인 편견으로부터도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개인은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보다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은 각자가 원하는 꿈과 이상을 자유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은욱 교육학과 강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기쁨

낮은 목소리 - 불우이웃돕기봉사회



참사랑봉사단 내의 불우이웃돕기 봉사회의 활동 모습.

세상에 알려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평소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도 연말·연시만 되면 사회봉사 시설을 찾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한결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본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93학번 김기영(현대건설) 동문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김 동문은 '98년 참사랑 봉사단 내에 '불우 이웃돕기 봉사회'를 조직하여 졸업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는 2학년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사랑 봉사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아동의

학습을 지도하는 활동을 하던 중, 3학년이 되면서 과 동기 한 명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봉사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2명의 단순한 인원으로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일들을 했지만, 회원이 늘어나고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자체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라복지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마포 연꽃마을에 가서 노인들과 함께 노래와 종이접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 해외 봉사단에 참가하여 해외 봉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 불우 이웃돕기 봉사회의 회원은 30여명이며 98년에서 99년까지는 '대학 사회봉사협의회'라는 전국규모의 단체에

서 지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원 신청이 누락되어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된 데다가 활동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초대 봉사회 회장을 지낸 김 동문은 "봉사회의 상황이 어렵다고 회원들의 마음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라며 걱정한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며 그는 지금도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김 동문은 앞으로 봉사회 활동 외에도 졸업한 동문들과 함께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일년에 1~2회는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 papaya@dongguk.edu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환한 등을 달아주십시오.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난 점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미혹의 어둠을 밝히는 세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책들을 선물해 보십시오. 세 개의 등불이 소중한 이의 가슴에 환한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채성/글·현관옥/사진·국판 208쪽·컬러 화보·값 7,500원

거지성자. 전채성·글·신국판 312쪽·값 7,500원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 김영권 지음·신국판 256쪽·값 8,000원

불경이 어렵고 무겁다면 페터 노이아르를 만나보십시오. 켈른의 한복판에서 20여 년간 누더기 한 발만 걸친 채 홀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무 밑의 성자. KBS 일요 스페셜 방영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그가 시인 맨발로 한국 땅을 밟으며 들려주는 경건 같은 이야기

페터 노이아르. '숨으로 가라, 새가 제 날개의 무게로만 날 듯이 소유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사는 거리의 수행자. 동사양 고금을 넘나드는 황홀한 가르침. 마음속에 잠자던 뉘앙스 깨어난다.

20여 년간 한국 최고의 선사들로부터 禪을 배우고 한국인 최초로 미얀마에서 출가하여 위빠싸나를 그리고 밀반 선사로부터 티벳 밀교 호칭을 전수 받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선 수행 지침서. 그림과 문답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거의 맹목적으로 소유와 권리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

선생은 새를 보면 새가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되고, 스님을 대하면 스님이 되었다. 긴 여운을 남겨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류지열/KBS 일요 스페셜 프로듀서

인류의 마지막 종교는 선이라는 말이 있다. 위빠싸나 수행은 인류의 진정한 의지가 될 것이며, 이 책이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상국 스님/무현선원장

# 대학, 시대 변화를 읽어내라

##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다양한 기회 제공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산다”

구세대로 표현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다만 명문학교와 직위가 보장되는 대기업을 꿈꾸며 안정된 삶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러나 테크놀로지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접한 젊은이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꿈꾼다. 이들은 기존의 대량생산체제가 지나왔던 권위적인 형태나 불합리성을 잘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에 맞는 삶을 찾기 원한다.

신세대들은 제도적이며, 입시위주의 중·고교 교육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고교시절 유일한 탈출구로 여겼던 대학 또한 입학 후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임을 깨닫고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면 막상 전공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능력이 결정되는 사회에 염증을 느끼며 체제를 탈출하려 한다.

이러한 사고 변화의 배경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던 대학의 졸업장보다 개인의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적 풍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하자'의 조혜정(연세대 인문학부 교수) 소장은 서울대라는 문제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사회는 이제 학벌이 아닌 실력을 갖춘 '서태지'를 원한다"며 "대학을 결정할 때 대학이 가진 사회적 위치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학교인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대학도 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혜정 교수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학과 학생이 변화해야 한다"며 대학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미래가 불안정한 대량생산체제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대학 자체도 기존의 대량생산체제에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령 창업 보육센터의 경우 대학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 왔지만 정작 학생들은 뒷전이다. 벤처 라는 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셈"이라며 "대학이 인턴쉽제도처럼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또한 변화의 노력을 대학 안에서 보다 대학 밖에서 찾으려 한다. 본교 박부권(교육학)교수는 "대학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점에만 신경쓰다보니 주변에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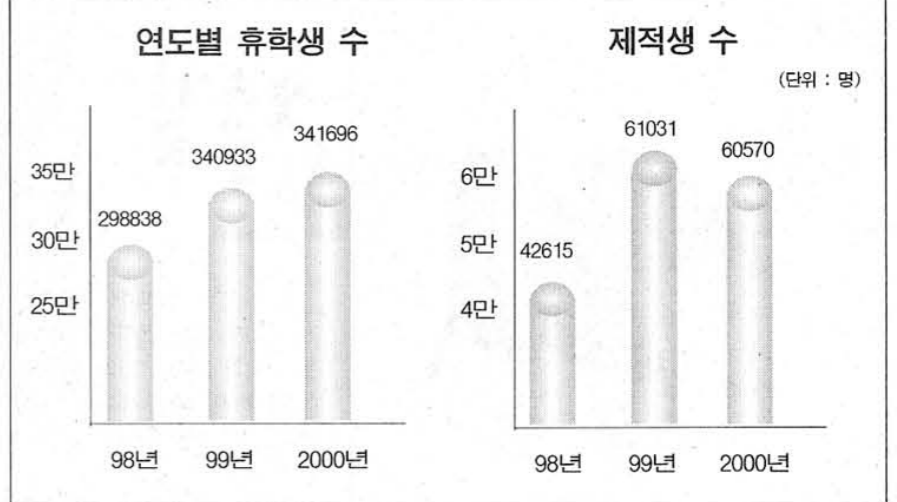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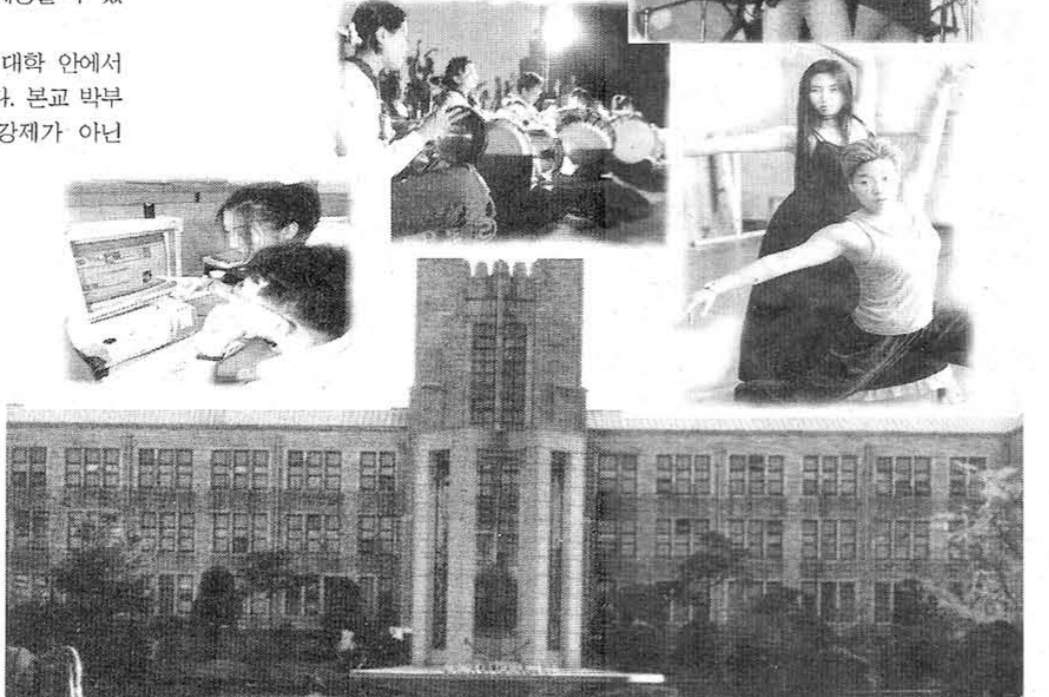
지금의 대학생들은 본격적인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주체로 성장한 '신세대'이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보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한다. 체제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몸으로 저항하며 자신들이 원

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대학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 취업이 목적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삶을 사회간접 체험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가치를 대학을 통해 얻어내야 시대가 요구하는 체제전환과 교육 대안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중기자  
dizzy20@dongguk.edu



### 동명카림 인간극장

## 부끄러운 교통 질서 불감증



남택화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경향83출)

얼마 전 어느 노동단체의 집회 후 이어진 행진과 관련한 교통관리를 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종묘공원을 출발하여 종로2가까지 어렵사리 진행하던 행진대열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종각 앞 사거리 일부 차로를 막고 연좌시위를 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막혀 사방에서 밀려든 차를 정리하느라 2~30분 이리저리 뛰어 다녔는데 시위대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대열이 앉아있던 차로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

담배포초, 생수병, 심지어 쓰레기 시위가 불거피 하더라도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기만했다.

차를 정상소통 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청소가 급선무였다.

급히 구청 청소과에 연락을 하고, 직원들을 돌려하며 큰 쓰레기부터 치우고 나서야 차량 소통이 가능해졌다.

항상 이런 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자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상식적 사고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불문율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상시 근무 중에 우리나라 교통질서에 비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만여명에 가까운 정도로 교통사고 세계제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

caesar2000@dongguk.edu

자동차는 잘만 사용하면 더 없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이지만 잘못 운용하면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는 것이다. 꼭여하듯 앞질러 가는 총알택시,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민원버스, 무작정 거어드는 차량, 무단횡단 등 그야말로 혐기증 나는 교통상황 속에서 모두가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교육수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민족의 교통문화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집단시위나 교통사고 등 민원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교통경찰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며 마음을 다잡는다.

올해도 추석연휴를 보며 비상근 무에 동원되어 교통소통을 위해 말 흘린 직원들이 있었고 이러한 그들의 노고 덕분에 큰 사건사고가 없었다.

곧 열릴 10월의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세계는 우리의 교통질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교통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통문화 수준을 끌어올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교통경찰도 이러한 사회적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경찰,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엄정한 경찰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인터뷰

탈학교 실천연대의 이한군을 만나

## “배움자체가 목적인 교육을 꿈꾼다”



이한 (서울대4)

탈학교 실천연대의 이한(서울대4)군을 만나 학교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탈학교 실천연대는 어떤 곳인가.  
=탈학교 운동의 구성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력제지의 이수화를 위해 책을 출판하고 토론회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자퇴생이나 일반학생들을 연계시켜 좀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고교 때 일방적인 학교행정에 이끌려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괴로웠다. 학교는 청소년기부터 집에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정해두고 학생들을 따르게 했다.

그 후 관련 책 등을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학교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대한 생각은.  
=학교문제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학입시, 수업 등 지엽적인 문제만 다루고서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인 학력제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졸업장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닌, 배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고등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고등학교처럼 일방적인 수업방식이 주가 되고 있다. 스스로

문제 의식을 구성하는 교육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학교측의 엄정한 학사관리에 학생들은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이 있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교육과정 대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학력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자격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법 등의 개정으로 교육부가 좌지우지하는 교육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 ok! SK

## 에너지·화학에서 생명과학 그리고 인터넷까지- 언제나 SK주식회사가 함께 합니다

SK주식회사 2000 환경경영대상 수상  
:에너지 부문 대상

**SK주식회사는 에너지·화학 기업입니다.**  
한미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떠오른 생명의 주춧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에너지·화학·SK주식회사는 1962년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로 설립된 이래 39년째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공장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81만 배럴의 원유정제시설, 국내 1위인 38%의 휘발유 시장 점유율, 국내 수요량의 47%가 넘는 LPG공급, 12개국 28개 공구에서의 유전개발 등 에너지사업과 연간 7천톤 규모의 에틸렌 분해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공정에서 연간 433만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종합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SK주식회사는 고객 여러분께서 보다 발전되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SK주식회사는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21세기를 앞보는 수많은 미래산업 중에서도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생명공학·SK주식회사는 정밀화학 분야에서의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 대우기술원, 미국 뉴저지에 리서치 센터와 약학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차세대 유용종 치료제 및 간질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도 생명공학, 신약 및 의약품에 연구개발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앞으로 고객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SK주식회사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전세계 네티즌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는 인터넷·SK주식회사는 기업·제품과 고객을 연결하는 홈페이지인 skcorp.com, enclean.com, skzic.com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브사이트인 okcashbag.com, 종근당 전문쇼핑몰 encar.com 등 e-business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앞으로 고객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www.skcorp.com

소나기

서태지컴백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커다란 획을 그어 놓았다. 환영이다.  
 △앤 컴백? 돈 떨어졌나?  
 △잘 나왔다. 또 뭘 보여줘라.  
 △속 빈 강정이다. 즉, 빈 수레가 요란하다.  
 △태지를 능가하는 락의 환영, 퍼어리스턴  
 △흔들릴 필요가 있는 것인가?  
 △태지는 달라졌나? 똑같다.  
 △태지는 잠적했을 때가 제일 멋있다.  
 △내 청소년 시절 방황을 잡아주던 그가 돌아왔다. 이런 내가 잡는다.  
 △한국서 태지나가 쟁이다 →한국서 태지나가 쟁이다.  
 △별로 느낀 건 없지만 예전처럼 다시 한번 비주류 음악의 대중과 물결을 일으켰으면 한다.  
 △한 인간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 직접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그는 그리고 우리 우리의 삶을 살면 되잖아.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이 들만 듣고 보면 되잖아.  
 △하드코어, 이미 한 물 간 걸 마치 새로운 척... 미국에선 10년도 더 되었다.  
 △나는 서태지 팬이 아니지만 서태지가 잘됐으면 좋겠다.  
 △공이 상업성이다 뭐다 해서 그것을 비판할 필요없다. 단지 음악 그 자체로 판단하자.  
 △컴백은 컴백일 뿐. 태지의 음악으로 열광했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 자기 맘대로 갔다가 오는 스타 따윈 관심이 없다.  
 △서태지. 그가 드디어 하고픈 음악을 시작했다. 우리 그가 있다는 것 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태지야! 영원하라. 그대 뒤에 우리가 있다.  
 △서태지가 신인가요? 아님 그를 원하는 우리가 신인가요?  
 △언론은 위대하다. 태지가 뜬 건 언론 때문이다.  
 △서태지 음악은 미국 하드코어의 아류정도다. 태지의 음악에 열광이라...이건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유행을 만드는 힘이 있는 가수. 서태지  
 △서태지는 현재 대중문화의 시조다.  
 △대학문화가 대중문화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문화대통령. 영웅이다.  
 △거짓말쟁이다. 아니면 뜻대 없는 놈이다. 아니면 그저 운 좋은 놈이다.  
 △돈 벌면 또 은퇴하겠지.  
 △군대갔다 오면 나도 서태지 좋아할 수 있지.

오수기

정혜정 (자연대 컴퓨터학과 3) 봉사활동, 참사랑 의미 일깨워준 경험



“모두 같이 고생한 건데 저만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지...”라며 속스러운 듯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정혜정(컴퓨터3)양. 많은 얘기를 나누기 전이었지만 수수한 겉모습처럼 성격도 털털해 보인다.  
 그녀는 지난 하계 방학동안 참사랑 해외봉사단으로 미얀마 현지 컴퓨터교육과 의료봉사를 다녀온 22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전공을 살려 컴퓨터교육에 나선 혜정은 편입학생이라 같은과의 다른 학생들보다 컴퓨터를 배운 기간은 짧지만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그 열의만큼은 더 커진 듯 했다. 그래서인지 미안함을 다쳐 온 얘기를 묻자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더위가 가장 힘들었던 많은 기억들을 뒤로 하고 날씨가 이야기부터 꺼냈다.

“우기였는데도 정말 더워서 처음엔 적응을 할 수 없었어요”라며 까바에 불교대학을 떠올린다.  
 더위 못지 않게 힘들었던 점은 미얀마 현지의 낮은 컴퓨터 보급률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녀는 “가기 전 여러 상황을 생각 하고 준비해 갔지만 PC를 켜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난감하기 이례데 없었더라”고 고단한 표정을 짓는다.  
 교육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  
 통역관이 한 명뿐인 상황에서 제대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가지 말에 각자 다르게 행동해 많은 웃음을 자아냈던 것이다. 이를 떠올리듯 그녀는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미얀마 사람들에게 “풍족하진 않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되뇌인다.  
 현지인들의 사담배나 나는 점을 생각해 자신이 나눠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져온 것 같다는 그녀. 혜정은 미얀마에서의 경험이 어렵게나마 배움의 의미를 알게 해준 계기였다고 마지막 말을 맺었다.  
 앞으로 그녀의 꿈은 정보통신분야의 든든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미얀마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참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이지 않는 징검다리라 되어줄 것이다.  
 <남>  
 20010723@dongguk.co.kr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성애자 실태파악 미흡

문화면에 실린 '퀴어 영화제'에 대한 기사는 학우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공하는 좋은 이야기 거리에 분명하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소주제 아래 쓰여진 글은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어려움을 담기보다는 그간 이루어진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 움직임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를 동성애의 역사·배경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앞부분에 같이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는 한국 동성애자들의 실태나 어려움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독자들에게 좀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퀴어영화 추천 기사에서는 영화의 내용만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배우, 감독, 영화의 배경 등을 함께 소개했다 하면 독자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지연(사회과학대 북한3)



공간문제 불균등하게 다뤄

제1300호 1면 탑 기사에는 “더이상 들어설곳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경주캠퍼스의 현실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을 기대했다. 비록 1화기라는 짧은 시간동안 학교를 드나들었지만, 공간 문제는 서울캠퍼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금 찾아가는 한의학관의 공간문제와 본관에 관련된 여러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설립예정인 제3캠퍼스 얘기가 나열할 게 아니라 역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경주캠퍼스의 현실을 독자들에게 알렸으면 한다.  
 한계원(한의예1)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통신 ID 하이텔 dgupress 뉴누리: 동대신문 천리안: dgupress

짙은 물품도난 불안감 조장

얼마 전 경주캠프 도서관 1층 지하 식당을 내려가던 중 초라하게 붙어 있는 벽보 한 장을 발견했다. 벽보에는 잃어버린 노트북을 찾아달라는 호소 어린 목소리가 적혀 있었다. 워낙 내용이 절실했는지 하에서 밤을 먹으면서도 끝내 그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다.  
 요즘 이와 같은 물품 도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싼 가격의 물건도난이 잦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그 한계가 없어졌다. 물론 이로 인해 일반 동국인 모두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학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괜히 모를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자리잡는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단기간이 될지 장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죄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물건에 갖는 관심 및 소중함의 부족이다. 어쩌면 한국인들의 고질병이라고도 불리는 안전 불감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살마 누가 가져가겠어?’, ‘조금 불안한데 괜찮겠지.’와 같은 생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다시는 벽에 붙은 한 장의 종이로 인해 가슴 한 구석이 허전

헤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좀 더 바라다면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종이가 온방골을 덮을 수 있는 의식을 온 동국인이 가졌으면 한다.

영원히 잊지 못할 일곱학우

선배라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후배를 맞다는 것은 참 가슴 설레는 일이다. 지난 2월에 우리 99학번 친구들도 설레는 가슴을 안고 대학 생활을 하며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시, 노래, 유행, 극, 영상 자료에 담아서 후배들이 대학 생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들은 미시령을 내려가던 중 버스의 진폭과 함께 모두 땅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공연은 무대에 올리지 못했다.  
 불의의 사고는 이제 갓 20살 된 청춘의 날개를 접게 하였다. 일곱 학우의 부모님들은 물론 함께 생활했던 동기, 선배들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님에게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  
 함께 했던 사람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슬픔과 고통 속의 시간이 몇 개월

흐르고 부상당했던 학우들이 하나 둘 학교로 돌아왔지만 일곱 학우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고객사랑의 마음 필요할 듯

얼마 전 노랑진 B여행사에 항공권을 사러 갔다. 몇천 몇백 이십원의 거스름돈을 받아야 했는데, 여행사 직원이 십원짜리 동전이 없다고 했다. 때는 평일 한낮이었으니 은행에 가서 바꿔올 수도 있었고 그게 어렵다면 주변의 다른 가게에서라도 잔돈을 바꿔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원은 전혀 잔돈을 바꿔줄 생각이 없는 듯 보였고, 직원 뒤에 앉아 있던 그 여행사 대표는 “그냥 가” 하고 반말을 하며 나에게 손사래를 치는 것이

었다. 어기가 어찌 그냥 앉아 있는데 대 표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냥 가”

이십원은 어디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적은 돈이다. 그러나 그 이십원도 영연히 돈이다. 그것도 고객의 돈이다. 친절할 서비스를 제일로 알아야 할 여행사에서, 아무 리 그 대표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고객에게 반말로 거스름돈이 없으니 그냥 가라 고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십원을 아끼기 위해 이십명의 관광객을 잃어도 좋다는 것인지. 관광대국 한국은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인가.

뒤에서는 어제의 그 대표도 나를 노려 보고 있었다.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팔십원을 준비해간 나는 심심짜리 여뎀 께 내놓으며 그림 백원을 달라고 했다. 직원은 갓겨 한숨을 쉬더니 백원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여행을 나갈 때 잘 가라는 인사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십원은 어디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적은 돈이다. 그러나 그 이십원도 영연히 돈이다. 그것도 고객의 돈이다. 친절할 서비스를 제일로 알아야 할 여행사에서, 아무 리 그 대표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고객에게 반말로 거스름돈이 없으니 그냥 가라 고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십원을 아끼기 위해 이십명의 관광객을 잃어도 좋다는 것인지. 관광대국 한국은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인가.

이십원을 아끼기 위해 이십명의 관광객을 잃어도 좋다는 것인지. 관광대국 한국은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인가.

이십원을 아끼기 위해 이십명의 관광객을 잃어도 좋다는 것인지. 관광대국 한국은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인가.

이십원을 아끼기 위해 이십명의 관광객을 잃어도 좋다는 것인지. 관광대국 한국은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인가.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농구, 축구, 마라톤~ 골라골라! 민족 동국 하나되는 백상예술제전이 다가온다  
 △피어리스턴 6TH 정기공연을 축하해 주세요!  
 △우리 편집부장 종혁이 생일축하하고 과대 위석이두 뵈었지만 생일 축하! - 태중  
 △조운영아! 과대표 된 것 축하하고 조금 무겁더라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 로알 스위트룸  
 △야중 노래대 '한울타리' 식구들, 우리 2 학기 멋지게 해보자구 - 게은  
 △현아, 사랑한다...! - 길진  
 △미경형, 뵈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41st  
 △인제야, 가련아 보기 좋다 love forever~  
 -기관요원들  
 △호상오빠, 유은오빠 짝 만난 거 축하해!  
 -국문00  
 △유진아! 생일축하! 앞으로도 계속 행복 하길... -W  
 △웃었지만 리나와 관, 지원오빠 첫밤 축하해요!  
 -그린파파의 향기  
 △석아! 과대된거 축하해. 제대로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은영누나

열심히 합시다

△피어리스턴의 카르신&유승종과 motherfucks 4기 파이팅 -4기 매니저  
 △힘들다구요? 그럼 웃어보세요!  
 -크레이지 스마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친구여, 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들...  
 △추석이후 불은 헬스동이를 힘내서 헬스에 박차를 가하자  
 △송근아 네 뒤에는 이 누나가 있다. 압~ 내 기를 받아라. 힘내!  
 △상사야! 풍물대 활동 힘들어도 열심히! 장학금 타거 축하해~ -초·중·고 동창  
 △은석아, 은정아 자취하느라 힘들지, 그래도 언제나 웃는 모습 참 보기좋다  
 △서울캠 동기들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만 가는 너희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알지? 우리 모두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경주 뺑이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철 하느라 수고하셨습다. 진이아!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 총회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오빠 열림 완쾌하시야오

△미션~임파서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사랑해 -썸  
 △인수아! 여자친구 놓치면 안돼. 꼭 잡아! -비크  
 △SUN! 방학 때 번 돈으로 언제 크게 한번 써라 -song lee  
 △육연아! 오빠 완쾌하면 차버려! -아름  
 △김여진! 추석 잘 보냈지? 고맙구 사랑해 -순가  
 △바보대장님, 보구싶어요~ -비보통선대  
 △플러터너스 오빠! 추석때 고향은 잘 다녀오셨나요?  
 △철홍이 보라! 커피 언제나 영원하길... 그런데 며칠됐나?  
 △양양~ 근로장학생 힘들지? 언제나 밝은 웃음 잃지 말고 우리사이 영원했음 좋겠어! -10,000  
 △학생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이전 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오시길... -범섬 동국인  
 △철우형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여여 빨리 자리 만드세요. 목이 빠지겠어요.  
 -이쁜 주영이  
 △당신! 무사히 건강하세요. -음  
 △사과대 개강파티 언제하냐?  
 △장개~! 수업 좀 제대로 듣자!  
 △아름아, 다름아 힘내라! 밤길 조심하고, 아침에는 나오지 마라.  
 △동평아, 내가 너 뺨에 속이 새까맣다. 말썹 좀 버리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못난이

은방글

축하합니다

△학교 생활 9년차, 최상식 복학 축하한다. 같은 9년차로서 잘하자 친구!!  
 △현주♥태희선배 백일 축하해요. 추가추카(짜!짜!짜!) 참고로 9.7 일임.  
 △지났지만 생일 추가한다. 큰소영아 -소낙비 9기들  
 △행정96 김봉부, 윤미정의 4년(9월 10일)을 축하한다. 행복해야해~ - 행정패밀리  
 △To. 동규, 복학을 축하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살아라. 밥 잘 먹고, - from 임  
 △항상 썩렁한 말로 우리를 압도하는 누구야~ 19일 너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좀더 의젓한 남자로 태어나길 바라  
 -너의 동기들이  
 △차 태위쵸~ -이저씨(동진이)  
 △남들 다 있는 면허증 이제야 땀다며? 나 데려와!! 축하해 -친구의 친구  
 △지희야, 3학기 연달아 톱한거 정말 축하해.  
 △광배야, 플러그 광(!) 된거 축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Newsweek 전 회장! 안광희 고생~ 많았

다. 내가 겪은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는 달콤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규현아, 앞으로 계속 우리 Newsweek를 더욱 멋지게 이끌어 주시길.....Newsweek Fighting!!  
 - 前 前 회장  
 △재범이 형! 경북 발전에 관한 세미나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4학년들이여! 우리 모두 힘냅시다. △언제나 불의를 결에서 지켜봅시다.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  
 -불휘대니아  
 △용욱아, 요즘 많이 힘들지?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생활해라.  
 -소낙비 9기들

열심히 합시다

△한울 14기..... 영경, 선경, 성희, 세연, 주영. 힘내자 파이팅!!  
 △동희!! 한 학기 동안 잘 참여해주서 좋았고, 2학기에도 열심히. - White Elephant  
 △한문희여! 2학기 때도 열심히 해서 백상제전 우승합시다.  
 △전준음악감상실 DJ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힘내라!! 글구 좋은 음악 틀어 줘요... -음악사  
 △은지야 퀘스트 연습한다고 마니 힘들지... 톱한 더 힘내구 나중에 엑스포에서 좋은 공연 보여주길 바라. 기대하고 있을게.  
 -Limbo

알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소낙비 인

여학생실 학생생활의 일부

도서관이나 강의실처럼 여학생실도 '학생들의 일부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욕심이 있다. 여학생실에 근무한지 만 일년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학생실'이란 행정부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혹 안다 치더라도 학생회나 동아리의 일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차츰차츰 여학생수가 늘고있고 여학생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면 무의미하리라 여겨진다.  
 여학생실은 여학생상담과 비디오상담 등의 주간행사로 특강, 단기교과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이라고 해서 무척 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짜투리 시간에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얘기해 볼 수 있고, 매우 수요일에는 비디오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패션 및 인테리어 등 여성교양 잡지, 영화소식지 등을 구독하고 있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만남과 아우름'이라는 주제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처럼 학생들과 여학생실도 함께 하는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최소원(경주캠 여학생실 상담원)

그리고...

△세진♥홍기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행복해!! -형경이가  
 △형경야! 지갑 꼭 챙길 바라. -불똥 짝이  
 △경희야~ 같은 하늘아래서 얼굴까지 참 합들구나!! 너의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단다... 치~ -귀염둥이  
 △종렬야. 군대 잘 갔다오고, 제발 멋진 몸매 만들어라. -면제 받은 친구  
 △저 오빠 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네요. -영따 군대리  
 △수경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게야. 힘내~ -Limbo  
 △정규오빠 만나서 반가웠어요. -J



### 교수가 권한다

백경임  
자연과학대  
기정교육과 교수



### 월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소박하고 겸손한 삶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은 세계문학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책으로 이름나 있다. 문명을 등진 채 소박하고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로우는 자신을 가로막고 선 깊은 호수를 통해서 숨가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을 자연으로 이끌고 있다. 여

기서 독특하고 세밀한 자연과의 교감은 동양적인 사상과 종교로 이어져 문명에 대한 통렬한 풍자를 가하기도 한다. 삶이 멈추어 선 곳, '월든'에서 초록의 자연과 함께 하는 진한 삶의 감동과 문학적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이레, 정가 5천8백원.

### 녹색평론



"이 책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쉽게 접할 수 없지만 과학낭만주의와 물질낭만주의에서 벗어나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사랑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환경친화적 잡지.

너무도 보잘 것 없는 외양 속에 담겨 있는 글들이지만, 재미있고 소중한 내용들은 또다른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환경운동'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경쾌하고도 실천적인 길로 안내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녹색평론사/1년 정기구독료 3만원.

### 호스 위스퍼러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이 물씬 배어나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미국에서만 약 3백 50만부가 팔린 영국 작가 니콜라스 에반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 로버트 레드포드가 처음으로 감독 겸 주연을 맡은 영화이기도 하다.

큰 줄거리는 난폭해진 말을 치료하는 '호스 위스퍼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치유'와 '자각'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문태나의 광활한 초원을 배경으로 깨어진 가족 관계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되살아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터치스톤 제작/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주연.

###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그 두번째



"식욕·성욕·소유욕이라는 세 가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너무도 쉽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단면적 삶이 성장과 환희, 종말로 이어지는 나무의 생존 형태와 어긋나 있다는 현실 표현은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00년 서울연극제 초청 공연 작품 중 하나.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헛된 투쟁을 일삼고, 끊임없이 배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대무용 요소가 가미되고, 연극과 무용의 만남을 선보이는 특별한 연출이 전개된다.

비랑골 소극장/오는 20일부터 다음달 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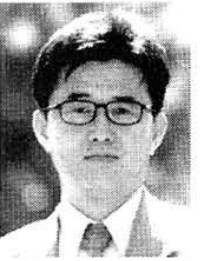
## 가을 여행

10월초로 기억된다. 명진관 101호 강의실에서 바라본 남산에는 가을이 온 듯했다. 나는 그 속으로 갈 것을 재의했고,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그러나 강의 시간 10분전, 더욱이 완고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의 한문학사 시간. 결국 가방을 챙기며 일어난 사람들은 대역섯 명뿐이었다. 명진관 현관을 막 나서는데 강의실로 오시는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께서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가을 마음을 나간다고 말씀드렸다. 강변을 따라가는 경춘선의 풍경은 우리의 들뜬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울보다 북쪽이어서 먼 저 온 가을을 보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소양호에서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여름을 보았고, 가을을 만

나기 위한 여행은 여름을 보내는 여행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우리는 늦은 점심 대신 매운탕에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밤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동·서양의 철인(哲人)과 문인(文人)은 가난한 우리들의 안주가 되었고, 우리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젖기도 했다. 서울엔 막대한 빈자리가 더 많았다. 많은 술을 마셨고, 그만큼의 말을 쏟아내며 우리는 모두 탐진되었다. 얼마쯤 잤을까. 버스 안의 고요함은 "안돼"라는 누군가의 비명 소리에 깨졌다. 우리 일행 중 한 명의 절규였다. 놀라 모여든 우리들에게 그는 창밖 강에 비추어진 보름달을 가리키며 달이 자꾸 떠러온다고, 오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까닭을 물으니 서울

## 달하나 천강에

은 달이 살 곳이 못된다는 것이다. 여름방학하기 전 이제는 중학교 선생님이 된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국어선생님을 초빙한다고 제자 한 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같이 근무하게 된 제자가 찾아와 여전한 그 친구의 근황을 들려주었다. 20대에는 많은 밤새를 맞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온갖 밤새에 익숙해져 삼한 약취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 밤새에 예민하던 그해 가을이 내게는 오래 전의 기억이 되고 말았다. 기억은 '과거'로 남기고 하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깊은 곳에 저장되기도 한다. 이번 가을에는 그것을 꺼내야겠다.



이종대  
문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다큐멘터리영상제, 일상 따라잡기

### 소재의 다양화 ... 자화자찬에서 벗어나 대중 속으로

다큐멘터리는 극단적인 허구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개에 따라 구성된 기사·소설·영화·방송프로그램이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논평전 전문 케이블 TV Q채널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곳에 모아 영상제를 연다.

대학로 동송홀과 하이퍼텍 나다에서 열리는 이번 영상제는 공개 행사에 앞서 '다큐멘터리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 (www.seouldoc.org)'를 먼저 개설해 경쟁부문에 진출한 작품을 미리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96년에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는 다큐멘터리 영상제는 지난해 대상작이었던 '민들레'가 같은 해 부산 국제영화제 운과상을 수상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이경순·최하동하 감독의 공동 연출작인 '민들레'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잃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 식구들이 겪는 일상을 차분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처럼 지난해까지 출품작의 소재가 인권, 여성, 노동 등 사회 고발적 성격이 강했다면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5일 마감한 올해 출품작은 육체,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일상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진아씨가 응모한 '빈 집'이라는 작품은 김씨가 대학 4학년때 거식증에 걸린 이후 겪은 5년간의 일들을 비디오표로 일기를 쓰듯이 보여주며 자애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상제의 한 관계자는 "낙선작 가운데도 DDR, 게임, 사물놀이, 춤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많았다"며 "다큐멘터리 소재의 다양화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며 더불어 다큐멘터리 발전의 첫 관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영상제는 아직까지 관계자들만의 자화자찬 성격이 더 강하다는 속세를 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작품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주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상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려만 그 만큼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연 올해 영상제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화된 작품 소재에 맞게 다양한 관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축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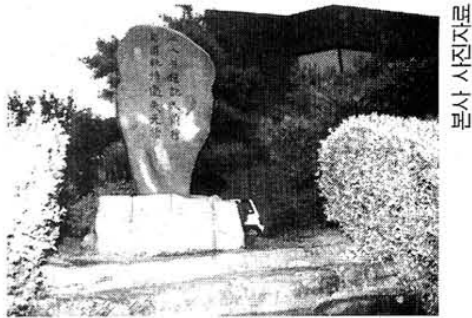
## "역사의 숨소리를 들어라"

### 무심코 지나친 교내 ... 천년의 문화 살아있는 현장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는 눈앞에 생생한 문화재를 지나쳐 가면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주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사실,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경주캠에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학생들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지나쳐 버리고 만다. 학생회관 입구에 세워진 비석을 보고 '이게 뭐야'라는 짜증스런 말을 내뱉는 곳도 몇몇 광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무관심 속에 버려진 이 비석은 기속사 뒤편 산자락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새겨진 글은 그 내용 축약이다. 단순히 햄버거를 사먹기 위해 들어서는 길목의 걸림돌로 밖에 생각지 않았던 비석이 신라 화랑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은 실소를 머금게 한다.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임신서기석 앞에서 옛 역사를 떠올리고, 문화를 그려보는지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경주캠 안팎은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형산강 줄기에서 경주캠으로 들어서는 경대교의 북쪽 3백미터 지리한 '해기청소'는 바로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배경이다. 주인공 모화가 마지막으로 곳을 하며 빠져 죽은 넓은 물웅덩이인데 명주실 꾸러미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깊다고 소설 속에 소개되어 있다. 아직까지 이 웅덩이는 '한낮에도 오싷한 느낌을 줄 정도로 검푸른 빛깔을 띠고 있어 해마다 익사 사고가 난다는 후담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94년 4월 본교 김길웅



경주캠 학생회관 앞의 '임신서기석'

(고고미술사학) 교수가 처음 발견한 '금장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생활양식과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바위예술'이라고 불린다. 이 바위그림은 선사시대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평가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김선화(국어국문학) 교수는 "경주캠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지만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우리는 신라 천 년고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 박물관에 살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은 흔히 말하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여행으로 외국의 문화유산을 찾아보고 다른 고종의 문화유산을 눈여겨보기에 앞서 가까이 있는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선조의 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문화재를 지닌 캠퍼스에서 문화특권을 누리는 정당한 권리를 무심히 놓쳐버리는 안되지. 이제부터라도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문화는 수용하는 좀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 참 의료의 새빛 동국이 밝힌다!

### 새경주한방병원 9월6일 개원!

지비실천 등 서양의학의 참조화!

부처님의 자비인심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9월 6일 확장 이전 개원한 경주한방병원에 이어 2002년 개원하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이제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더 많이 더 빨리 치유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중심병원! 동서양의학이 조화된 병원! 첨단시설과 최상진료인프라가 구축된 병원!

-새천년 동국의료원이 제시하는 참의료의 새모델을 통해 자비공명의 인심이 온세상에 퍼져가기를 기원합니다.

###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2002년 개원!

인간중심 최첨단병원의 새모델!

병원건립기금등참안내) TEL.02)2260-3300 <병원위치> 고양시 일산구 식당동 814번지

진료과목

- 한 방 : 내과, 부인과, 소아과, 침구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 양 방 : 가정의학과(내과, 소아과 진료가능), 재활의학과(대형물리치료실 운영)
- 특수진료센터 : 중풍센터, 척추관절센터, 산후조리센터

(병원위치) 경북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업그레이드 중!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http://www.dongguk.edu

건설키요

- 대지면적 : 29,373㎡(8885.3평)
- 연 면적 : 91,276.65㎡(27,611.06평)
- 건물규모 : 지하2층, 지상12층, 옥탑2층
- 지하면적 : 35,536.51㎡(10,749.75평)
- 지상면적 : 55,740.14㎡(16,861.32평)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평 상 수 : 800명상·양방 600, 한방 200, 중추 200(예정)
- 승 강 기 : 승18대, 에스컬레이터 : 12대
- 건축연적 : 10,055.18㎡(3,041.69평)
- 주차대수 : 승 601대/저상 301대, 지하300대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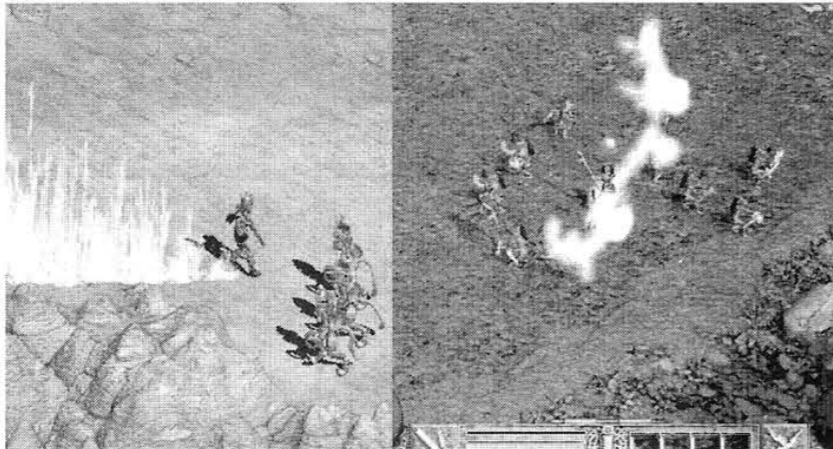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T. (054) 748-9300
-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T. (054) 273-8111
-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T. (031) 710-3700
-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T. (02) 3416-9700
- 동국대학교 LA동국로알한방병원 T. (213) 487-0110
-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T. (054) 770-1200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T. (031) 969-6031

### 매체비평

- 게임편

### 디아블로 II

“게임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최근 스타크래프트의 뒤를 이어 인기를 끌고 있는 디아블로II

게임이 사람들의 폭력적 성향을 부추긴다는 건 사실이다. 굳이 임상 실험 결과물이나 실증 연구 사례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너무나 리얼한

모습으로 터져 날아가는 머리를 보면서 피와 폭력에 대한 저항감이 희미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게임의 폭력성은 현실에까지 침투한다.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게임방에서 '디아블로 II'의 인기는 아직도 뜨겁다. '디아블로'가 인기를 끄는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배틀넷이다. 인터넷에 들어가 여럿이 협력해서 디아블로를 물리친다. 하지만 배틀넷의 활성화는 주도했던 '디아블로 I'의 성공 비결은 따로 있었다.

'디아블로'가 붐을 이루며 '플레이어 킬러(PK)'라는 생소한 단어가 떠올랐다. 정작 디아블로를 해치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게이머를 죽이고 아이템을 뺏는 걸 즐기는 게이머들을 일컫는 말이다. 남이 가진 좋은 칼이나 방패가 탐나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약한 상대를 괴롭히고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남이 애써서 키운 캐릭터를 죽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상대를 해치우면 전리품으로 귀를 잘라 가질 수 있는 걸 보면 제작사인 블리자드

측에서도 은근히 PK를 조장한 셈이다.

PK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II'에서 PK 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이제 서로 함의하지 않으면 대결을 벌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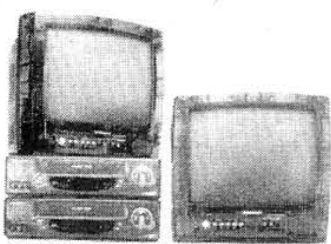
하지만 상황은 그리 바뀌지 않았다. 영 어만 지원할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한국식 욕설이 난무하는 속에서 상대를 흥분시켜 대결을 유도해 죽이고 아이템을 빼앗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PK에만 열을 올리는 건 아니다. '디아블로 II'에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다섯 종류다. 덩치가 큰 바버리안이 제일 앞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사이에 뒤에 숨은 소서리스가 불벼락을 때린다. 민첩하기로는 아마존을 따라갈 자가 없고, 네크로맨서의 업기적인 기술은 조루라기들을 쓸어버리는 데 더할 나위 없

다. 팔라딘은 동료들의 마법이나 독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을 서로 다른 재주를 가진 동료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가는 건, 모여서 같이 공을 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즐거움이다.

많은 게임이 폭력적이다. 하지만 비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잔인한 게임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게임은 거울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비춘다. 때로는 따뜻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악의에 차 있다. 세상은 폭력적인 곳이고, 인간의 본성도 어쩌면 그렇지 모른다. 게임은 그걸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을 한다.

박상우  
게임평론가  
sugulman@chollian.net



# 디지털방송의 미래를 점친다

## 고선명·고화질의 방송 혁명... 투자와 홍보 통해 가정정보화 단말기로 거듭나야

지난 8월 31일에 SBS가, 그리고 9월 3일에는 KBS와 MBC가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시험방송을 위한 전파를 송출하였다. 이로써 비록 시험방송이지만 이른바 디지털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디지털방송의 반방송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과거 흑백방송에서 컬러로의 변화가 일종의 진화였다고 한다면,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의 변화는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아날로그방송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하부 시스템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향후 디지털방송은 맞춤형의 생산과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를 지향할 중요한 하부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의 각도까지 자신이 선택하여 본다고 상상해 보자.

디지털방송과 함께 시작되는 데이터방송은 이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TV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볼 것도 사는 것을 상상해 보자. 인터넷 TV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고품질 다기능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TV는 더 이상 바보상자가 아니고 가정의 핵심적인 정보단말기가 되며, 이의 이용자는 기존의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정보이용자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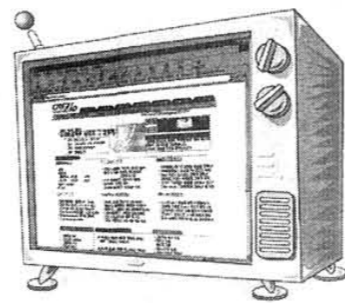
### 디지털 방송방식 '미국의 ATSC'

이러한 고품질 다기능의 디지털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TV 방송표준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ATSC방식, 유럽의 DVB-T방식, 그리고 유럽 방식을 일부 응용한 일본의 ISDB-T방식 등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방식은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DVB-T방식은 특히 다중경로에서의 수신, 이동수신 및 실내 수신 등에서 유리한 반면, ATSC방식은 HDTV 구현의 용이성, 원거리 전 개강도의 우수성, NTSC식의 아날로그방송에서의 이력용이성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지상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위의 세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후,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ATSC방식의 채택을 건 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국내의 디지털방송방식은 미국과 같은 ATSC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에서 ATSC방식과 DVB-T방식 등을 현장 테스트를 통해 비교 평가하여 DVB-T방식을 선택하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국내에서도 필드테스트를 거친



### 디지털방송이 경제에 미치는 힘

디지털방송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엄청난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수상기부문만 보더라도 현재 국내에 등록된 1천6백만대 가량의 아날로그TV 수상기를 10년 내에 디지털수상기로 바꾼다고 했을 때 약 48조원의 시장이 생성된다.

당장 2001년에 디지털방송 본방송이 시작되면 약 40만대, 2002년에는 약 76만대, 2003년에는 1백28만대 등 시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디지털설비구축에 앞서나간 국내 가전업체가 국내시장을 발판 삼아 목표대로 세계 디지털TV 수상기시장의 30%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수출과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밖에 다양해진 서비스를 통해 성장하게 될 방송서비스 시장의 규모, 이로 인해 방송기 및 서비스산업에 새로이 창출될 고용인력 등을 감안하면 디지털방송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집중적인 디지털TV 관련 기술 개발 노력 덕분이다.

즉, 그간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 같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 뒤질 경우 21세기에도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디지털TV 분야에서는 일본과 대등하거나 일부 앞서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방송의 시작이 가지는 의의 및 이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로의 전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방송사와 수상기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일 때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방송사의 경우 디지털 방송 실시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고, 시청자들도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대당 수백만 원에서 일천만원 을 호가하는 디지털TV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와 시청자들은 이러한 투자와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어질 지에 대해 반신반의 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의 추진과 홍보를 통해 그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사자들에게 참여동기를 제공하여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그간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이 적절한 시간 계획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된 점은 인정받을만 하지만 방송사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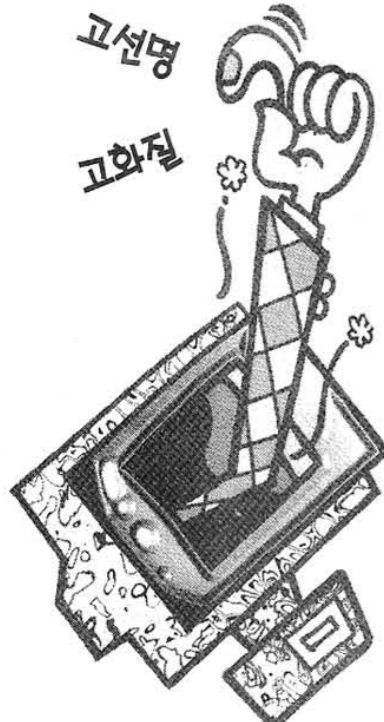
### 가정정보화 단말기?

만약 디지털방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는 지난 20년간 인상되지 않은 TV수신료의 인상과 방송광고제도의 탄력적 운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정부는 비용의 최종부담자인 시청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 디지털화의 일차적 수혜자가 될 가전사가 초기의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하여 방송사의 부담을 나누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험방송의 시작으로 디지털방송시대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당장은 조금 더 선명한 그림과 소리에 그칠 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디지털TV는 방송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정보화 단말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방송사, 가전사, 그리고 시청자가 모두 디지털방송의 수혜자가 될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김도연 박사  
정보통신 정책연구소 연구원  
dohyeonk@sunset.kisdi.re.kr



### 방송 혁명! 더 선명하게, 더 또렷하게

그럼 구체적으로 디지털방송의 시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기술에 힘입은 더 선명한 화질과 더 또렷한 음질의 제공일 것이다. 디지털방송은 화면의 선명도를 표시하는 화소(素)와 주사선의 수가 아날로그방송보다 훨씬 많이 분명한 화질의 향상을 느끼게 해 준다. 여기에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도 4:3에서 16:9로 넓어져 극장 스크린과 같은 광폭화면을 보여주게 된다. 아울러 CD수준의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여 TV시청의 즐거움을 배가 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대되는 것은 향후 활성화 될 디지털방송을 통한 쌍방향적 정보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각종 데이터를 함께 불러오고, 카페

▲양:양명하세요./드:드자이내요./레:레이클은/김:김봉남이예요. 지난 해 옷로비 사건이 미공속으로 빠져들자 특별감사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두한 디자이너 안드레 김의 본명이 밝혀졌고 이후 안드레 김 4행시는 특별감사제와 함께 기억되곤 한다. ▲'김새'가 이상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옮겨라. 유선전화는 피하라. 휴대전화도 움직이

면서 걸어야 한다. 통화를 간단히 끝낸 후에는 곧바로 전원을 꺼라. 뒤따르는 차량이 있지 않나 항상 확인하라. 007정보원을 받들게 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람은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서 '박지현 장관'으로부터 대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인 이윤영씨이다. 이씨는 박지현 당시 대통령 공보수석으로부터 부당한 대출 압력을 들어주지 않았다

는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의 지휘를 받는 특수 경찰조직인 사직동팀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 현재 직장에서 쫓겨나 도피중이다. ▲검찰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외압'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지 않고 '신종 대출 사기극'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며칠 전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의 유죄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씨가 사실을 날조해 정권 실세에

장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씨의 대학 동창들이 중심이 되어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를 돕고있어 여론이 이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여는 권력형 비리가 그러하듯 한빛은행 사건도 미공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지난 '옷로비 사건'에 도입되었던 특검제가 밝혀낸 것은

안드레 김의 본명 밖에 없다고 하니, '특별'한 검사들로 구성되었다 해도 권력의 실세와 외압에 좌지우지 되는 현실인가 보다. 이윤영씨가 유죄 여부를 떠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숨어다니며 외압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김진아 편집장  
pazama@dongguk.edu

### 메아리

진실

취업 길라잡이

닷컴기업, 신기루에 불과한가

닷컴 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닷컴'은 인터넷을 의미하고 '컴(com)'은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런 닷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정보 콘텐츠, 커뮤니티 구성, 판매유통 및 중개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부터가 '닷컴'은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낯선 단어가 되었다. 매체를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익숙해진 단어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 정보 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는 '닷컴'을 잘 알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중심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회사 이름에 도메인 네임의 일부인 닷컴(.com)을 붙이게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닷컴 기업은 새로운 고용창출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올 3·4월부터 이러한 닷컴 기업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위기'나 '조정'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도 닷컴 기업에 대한 위기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닷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소개했는데 트폰에 눈멀어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지, 트폰을 통해서 커 나갈 수 있는 곳인지, 트폰은 어디인지, 트폰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트폰은 비전어 어떤지, 트폰은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구조조정이 이익창출이나 하는 것들은 보편적인 경영과정이며 목표이다. 닷컴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관심이 높은 만큼 잡음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론이나 위기론이냐에 혼동되지 말고 확실한 기준과 현실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다.

자료제공=취업관리실  
정리=최은진 기자(funny@dongguk.edu)

닷컴의 10대 생존 프로그램

Table with 3 columns: 전략요소, 세부전략, 주요내용. Rows include: 비즈니스모델, 업그레이드, 오프라인 결합, 구조조정, 국제화, 철수.

책소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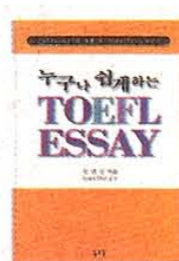


"인간의 모든 불행은 유익할 줄 모르는 데서 나온다."는 블레즈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되는 이 책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느리게 게으름을 피우고 사는 것도 못지 않은 성공이라며 느림은 단지 선택일 뿐이라고 한다.

피에르 생스 지음, 김주경 옮김/동문선/정가 7천원

누구나 쉽게하는 TOEFL ESSAY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CBT(Computer-Based Testing)의 Essay(영 어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책. TOEFL 주관처 ETS에서 발표한 1백 36개의 논제를 유형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분류해 놓았다.

만만 아니라 컴퓨터로 치르는 TOEFL 시험에 대비, 키 사용법과 아이폰 사용

법 등도 간략하게 실려 있다. 정대규 지음/삶과 꿈/정가 1만 2천원

0.75평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 방 하나



비정한 장기수들 중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한 7인의 육성을 담았다. 남북단단의 비극적 역사의 일부인 이라는 측면에서 비정한 장기수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어린 시절부터의 송환되기까지를 반추하고 있다.

김선명 외 6인 창/정가 8천 5백원

티핑 포인트



흔히 유행을 '뜨다'라고 표현한다. 이 책은 '베스트 셀러는 어떻게 팔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팔리지 않아 창고로 들어갈 뻔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극적으로 베스트 셀러가 되고 사회복식 수당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된 원인을 분석한다.

'뜨기'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근거와 미시적인 변화가 폭발적인 힘으로 접목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실용적으로 제시한다. 밀름 글래드웰 지음/임옥희 옮김/이플리오/정가 1만 2천원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Fearless Dawn 정기 공연



서울 캠퍼스 Fearless Dawn이 6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불가불과 카르산, 유승종과 머더백커스, 피어리스턴 네팀으로 나누어 락의 세계를 펼쳐게 된다.

특히 이 공연에서 연주한 원곡들을 CD에 담아 관객들에게 줄 예정이다. 21일(목)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입장료 2천원, 문의 019-424-9908(운영부)

가야금 독주회



경주캠퍼스 국악과 윤소희 교수의 가야금 독주회가 열린다. 윤교수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이수자이며, 선이 굵고 호방한 맛이 두드러지는 죽파 산조 전바탕을 연주하게 된다.

이번 연주회는 죽파 산조의 예술성을 표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일(19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문의 (02)580-3333

학교 밖에서

모니터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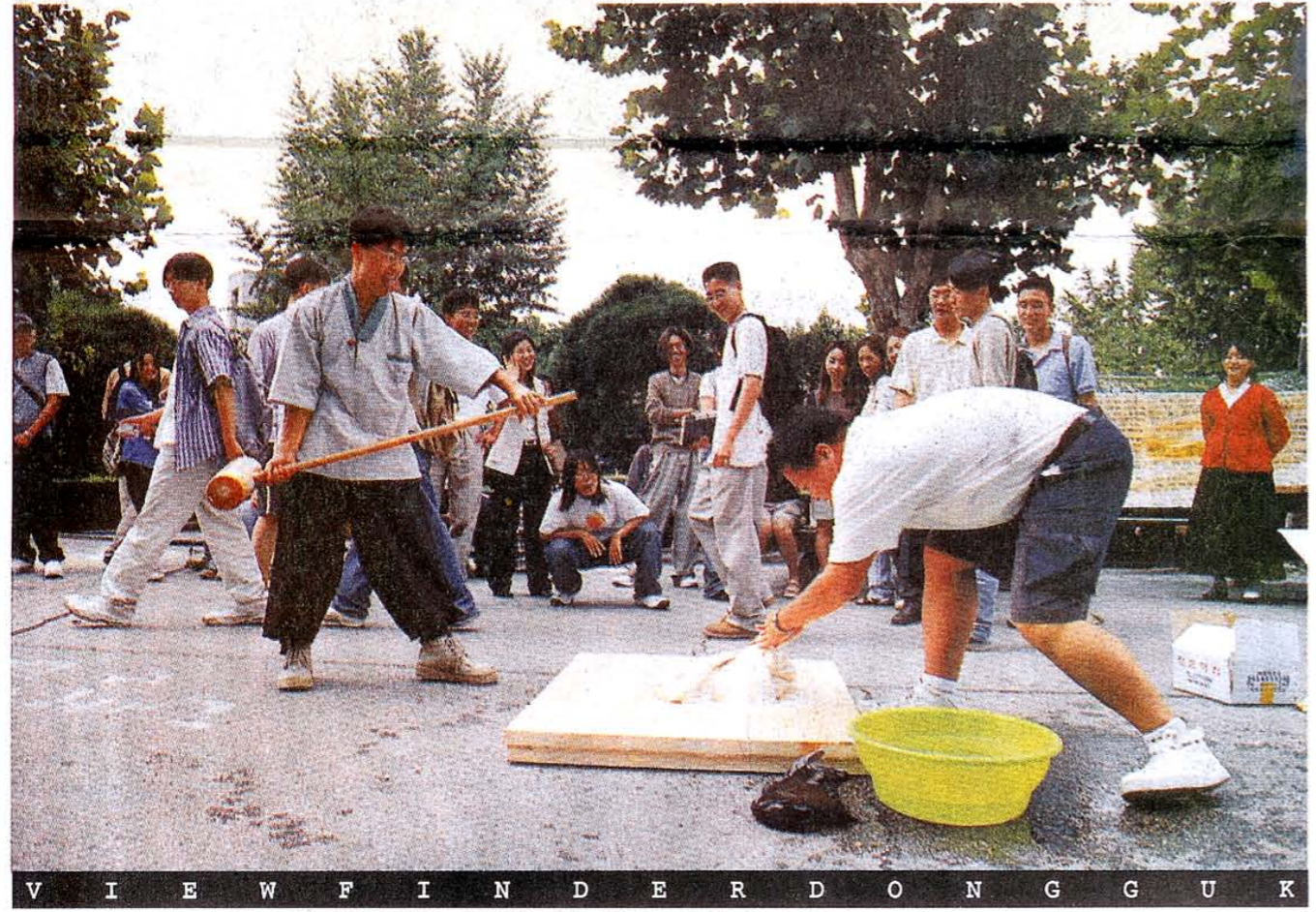
매비우스(매체비평우리스스로)가 건강한 TV문화조성과 시청자의 올바른 방송평가를 위한 방송 모니터 강좌를 연다.

'학교 밖 교과서 TV'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강연하며, 일반과정과 대학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9월 20일부터 www.mabius.or.kr 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본 강좌를 이수하면 매비우스 모니터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과정=매월1일 개강, 대학과정=9월말 개강 문의 365-1521

금요일의 문학 이야기

문예진흥원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열린 문학강좌 '금요일의 문학 이야기'가 9.10일에도 계속된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대학로 문예진흥원에서. 문의 760-4561

Table with 2 columns: Date, Title. Rows include: 9월22일 문정희 나의 열정, 나의 시; 9월29일 김영현 우리 소설의 흐름; 10월6일 윤대영 나의 소설 쓰기; 10월13일 이은택 시, 희곡, 연극, 영화의 관계; 10월20일 황동규 시의 초점; 10월27일 김광규 시의 넓이와 깊이



"으랏차차" ... 있는 힘껏 땀을 내리쳐 보지만 마음대로 안되는 듯... 구경하는 친구들의 웃음에서 한가위의 넉넉한 정취가 느껴진다. 촬영=송광수 동문

고전음악감상실, 피곤을 달래는 곳

다양한 학생육구 충족위한 지원 필요

'고전음악감상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 곳에 편안함이 자리잡는 것 같다.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고전 음악감상실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일상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고전 음악 감상실은 긴 소파와 잔잔한 음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떠들석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원하는 학생들이 소파에 몸을 기대며 책을 읽거나 단잠을 자기도 한다.

이곳은 현재 음악 선곡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6명의 요원이 스케줄표를 작성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감상실의 수습요원들은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들을 수도 있고 마치 DJ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다"며 "처음엔 그저 음악 듣는 게 좋았는데 점점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을 느낀다"고 말한다.

목표를 기록하며 능숙할 정도까지 반복되는 LP나 CD작품법에 대한 교육, 편안한 멘트의 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11월 초에 열리는 '레코드 음악 감상회'는 이 곳을 찾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감상실은 학내 공간부족문제 때문에 폐쇄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소수의 학생만이 이곳을 찾았다는 이유로 그러나 부족한 복지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종(불동2)실장은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감상실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학기부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리고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구성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점

점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받았던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CD수가 많이 부족할뿐더러 학생들이 음악을 신청해도 부여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전국에 클래식 감상을 위한 고전음악감상실을 갖춘 대학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한 만큼 이 곳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소수의 인원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도 곳곳이 자기 일을 즐기며 CD를 바꾸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상실 요원들의 모습과 소파에 잔뜩 몸을 파묻은 채 음악 감상에 심취한 학생들을 보며 일상의 피곤이 쉬어가는 아늑하고 이쁜 유쾌한 한 폭을 떠올려본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감상실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Rows include: 월, 화, 수, 목, 금.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Rows include: 월, 화, 수, 목, 금.

Advertisement for 'English Essay Contest' with details on dates, priz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STARS 신입회원 모집' (STARS New Member Recruitment) with a photo of the group.

주소를 남겨 주세요

9월10일 지리산로타리산장에서 외국인 2사립과 사진찍으셨던분... 불행하게도 우리일행이 비를 맞아서 주소를 알아 볼 수 없게됐어요.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은데...이메일에 주소를 남겨주세요. 고의가 아닙니다. 95회번이라 들은것 같은데. 참고로 비행장의 운해 사진이었습니다.

56번째 소강당 영화제

그린마일 9월20일(수) 오후5시 제32대 지주적 총학생회 16번째 학생복지위원회

여름방학특강을 들은 학생들

기념품(플로피디스크케이스) 수령 지침 : 학생증, 수강증 9월 안으로 다량관 2층 학생복지위원회로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Rows include: 월, 화, 수, 목, 금, 토, 일.